

# 메이지 일본(1892~1900)의 ‘이탈리아 로망스’

윤영실\*

이탈리아 3걸(傑) 전기의 서사 전략과  
내셔널리즘의 변주

**초록** 본 연구는 1892년부터 1900년 사이 메이지 일본에서 발간된 이탈리아 ‘건국 3걸’ 전기인 『이태리건국삼걸』, 『카밀로 카보우르』, 『가리발디』를 대상으로, 서구의 원전이 일본적 맥락에서 재서사화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들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적 번역을 넘어 14종 이상의 영어 자료에서 정보를 선별, 각색, 재구성한 ‘지적 편집’의 산물이자, 당대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내셔널리즘의 향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투사한 ‘이탈리아 로망스’였다. 히라타 히사시는 역사를 자유를 향한 진보로 간주하는 영국의 휘그 사관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일본의 ‘국민 통합’과 대외 팽창을 촉구하는 전쟁 서사로 변주했다. 마쓰무라 가이세키는 카보우르의 실용적 외교술을 모델 삼아 일본 주도의 아시아 해방과 ‘동양 일통(一統)’이라는 제국주의적 비전을 투사했다. 기시자키 쇼는 가리발디의 급진적 정치성을 소거하고 낭만적 영웅과 동양적 재자가인(才子佳人) 서사로 형상화함으로써 대중적 소비의 대상으로 변모시켰다. 메이지 일본의 ‘이탈리아 로망스’는 이탈리아 통일사에서 공화주의나 혁명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천황제 국민국가 수립과 대외 팽창을 정당화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역사 해석의 틀로 기능했다.

**주제어** 이탈리아 건국, 번역, 메이지 내셔널리즘, 휘그 사관, 동양연대, 서사 전략, 영웅 전기, 이탈리아 로망스

## 1. 서론

20세기 초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이탈리아 통일 과정은 단순히 서양이라는 타자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었다. 망국의 위기와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제, 혹은 제국주의 열강으로 도약하는 기로 앞에서 ‘이탈리아 건국 삼걸’의 서사는 일종의 교과서이자 매뉴얼로 기능했다.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가 공화와 입헌이라는 정치적 지향의 차이, 계몽·무력·외교라는 전술적 차이를 넘어 궁극적으로 통일과 독립을 성취해 낸 성공담은, 동아시아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동일시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서사를 제공했다. 서양, 일본, 중국, 조선으로 이어지는 번역 연쇄의 흐름 속에서 삼걸 전기의 변화와 변용은, 그 자체로 각국의 당면 과제와 직결된 사상적 발화이자 정치적 실천이었다.

선행 연구들은 량치차오(梁啓超)의 『의대리건국삼걸전』(意大利建國三傑傳)을 중심축으로 삼아 그가 일본어 저본 3종을 조합한 사실과 한국에서의 중역 양상을 밝혀왔다.<sup>1</sup> 마쓰오 요지는 량치차오의 번역 저본이 히라타 히사시(平田久)의 『이태리건국삼걸』(伊太利建國三傑)과 마쓰무라 가이세키(松村介石)의 『카밀로 카보우르』(カミロ カブール)임을 밝혔고, 손성준은 기시자키쇼(岸崎昌)의 『가리발디』(ガリバルヂ)가 제3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음을 규명했다. 특히 손성준의 연구는 신채호에서 량치차오, 히라타를 거쳐 메리어트(J. A. R. Marriott)의 *Makers of Modern Italy*(이하 *Makers*)로 소급되는 번역 연

1 선행 연구들이 밝힌 번역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J. A. R. Marriott (1889), *The Makers of Mordern Italy*, London: Macmillan and Co.; 平田久(1892), 『伊太利建國三傑』, 東京: 民友社(히라타본 혹은 『이태리건국삼걸』로 지칭); 松村介石(1898), 『近代世界十代偉人(其一): カミロ,カブール』, 『太陽』, 1898. 1. 1.(上篇); 1898. 1. 20.(下篇); 岸崎昌(1900), 『ガリバルヂ』(世界歴史譚 第11編), 東京: 博文館(기시자키본 혹은 『가리발디』로 지칭); 梁啓超(1902), 『意大利建國三傑傳』, 『新民叢報』, 1902, 6~12월 연재(『의대리건국삼걸전』으로 지칭); 신채호(1907), 『伊太利建國三傑傳』, 광학서포; 주시경·이현석(1908), 『이태리건국삼걸전』, 박문서관.

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각각의 이념적 지향을 밝히는 한편, 히라타가 메리어트의 원서를 생략, 추가, 축약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비교 분석한 바 있다.<sup>2</sup>

본고는 손성준의 연구를 계승·확장하여 이탈리아 건국 삼걸 전기가 동아시아에 '번역'된 양상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 영일 텍스트 대응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히라타와 메리어트의 비교에 한정되었기에, 나머지 일본어 2종이 어떤 서양 저본들을 참조했는지, 나아가 일본어 3종이 삼걸을 형상화한 방식이 어떤 사상적 함의와 차이를 갖는지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히라타가 책의 첫머리에 저본을 명시한 반면 나머지 2종은 참조점을 밝히지 않았던 점도 지금까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일 것이다. 더욱이 마쓰무라나 기시자키의 텍스트는 히라타처럼 주저본 1종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의 영어 문헌을 패치워크(patchwork)처럼 조합해서 재구성되었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많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어 쉽게 접근 가능해졌으며, 데이터의 수집, 가공, 번역, 시각화 전반에서 AI와 디지털인문학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연구 환경의 변화 덕분에 비로소 가능했다.

근대 초기에는 '번역'과 '참조', '저작'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점도 새삼 강조해 두자. 본문에서 상술할 것처럼 일반적으로 메리어트본의 '번역'으로 간주되는 히라타본 역시 수많은 첨삭과 축약으로 원전을 변경했으며, 브

2 松尾洋二(1999), 「梁啓超と史伝: 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精神史の奔流」, 『共同研究梁啓超: 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すずみ書房, pp. 257-295; 손성준(2007a),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동아시아 수용 양상과 그 성격』,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석사논문; 손성준(2007b), 「국민국가와 영웅서사: 『이태리건국삼걸전』의 서발동착(西發東着)과 그 의미」, 『사이間SAI』 2,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pp. 77-112; 손성준(2023), 『중역한 영웅』, 소명출판, pp. 157-209. 본고의 연구 범위는 삼걸전의 영·일 번역에 한정되기에 랑치차오의 『의대리건국삼걸전』이 한국에서 신채호의 국한문본과 주시경·이현석의 국문본으로 번역된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리태니커 사전, 마치니 전기 등 또 다른 소스의 정보를 추가하기도 했다. 기시자키는 여러 개의 영어 소스를 활용했으나, 문장 단위까지 그대로 번역하거나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집적 번역에 가깝다. 마쓰무라는 다양한 소스를 참조하여 삼결전을 재구성하고 상당량의 독자적인 시사 평론까지 첨가했다는 점에서 일본어 3종 중에서는 가장 ‘창작’에 가깝다. 그러나 마쓰무라의 글쓰기 방식을 량치차오가 일본어 본 3종 이상을 해체·재구성하고 자신의 독특한 사론을 덧붙인 ‘번역’ 행위와 비교해보면, 양자를 확연하게 구분할 기준점을 찾기 어렵다. 요컨대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서 ‘번역’이란 단순히 언어 간(translingual) 전이를 넘어, 참조와 각색, 창작이 혼재된 ‘회색 지대’에서 원천 지식을 재가공하고 재맥락화하는 역동적인 ‘지적 편집’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글로벌 지식장<sup>3</sup>의 배치 안에서 일본어 3종 텍스트가 특정 지식을 선택·배제·변형하고 메이지 일본의 정치적 상상력을 투사하여 저마다의 독특한 ‘이탈리아 로망스’로 재구축했음을 살펴본다. 오코너(Maura O'Connor)<sup>4</sup>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은 리소르지멘토(이탈리아 통일 운동)를 영국 중산층의 보수적 자유주의가 투영된 한 편의 ‘로망스’로 소비했다. 이탈리아 통일사에 얽힌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나 급진적 공화주의 지향은 소거되고, 그 자리는 ‘자유 대 억압’이라는 단순하고 도덕적인 드라마로 채워졌다. 물론 사관에 따른 정보의 취사선택은 역사기술의 일반적 특징이지만, 타자의 역사를 자국의 정치적 비전을 정당화하는 서사적 자원으로 전유하고, 그렇게 허구화된 역사와 인물을 감정적 동일시와 적극적 소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로망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3 일어 3종의 직접 소스는 영어 텍스트에 한정되지만 그중에는 프랑스어 저작의 영어 번역물도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 프랑스, 미국의 지식 생산물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19세기 말 ‘글로벌’ 지식장의 상당 부분을 포괄했다고 볼 수 있다.

4 Maura O'Connor (1998), *The Romance of Italy and the English Political Imagin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것이다. 본문 각 장에서는 히라타(2장), 마쓰무라(3장), 기시자키(4장)가 여러 영어 자료들 중에서 보수적 자유주의 계열의 텍스트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도약을 앞둔 일본의 정치적 비전(팽창적 국민주의, 아시아주의, 일본주의)을 투사하여 나름의 ‘이탈리아 로망스’로 재구성했음을 분석할 것이다.

논문 작성에 앞선 연구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어 3종의 참조 범위에 들어갈 만한 영어권의 이탈리아 건국사와 삼결 전기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렇게 추려진 영어 23종과 일어 3종의 모든 문헌을 수집·가공하여 텍스트화하고, 조판행별로 고유 번호를 붙여 1차 데이터를 만들었다. 1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어 텍스트의 정보를 영어 소스와 매칭하였고, 그 결과 최소한 영어 소스 14종<sup>5</sup>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의 매칭 과정에서는 AI를 통한 텍스트 요약과 에피소드별 매칭, 숫자, 고유명사 등을 지표로 삼은 키워드 검색 매칭, 문장 임베딩(embedding), 의미 구간 구획(chunking), Streamlit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간이 검색기 제작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인문학 방법을 동원했다. 일어 3종 각각에 대한 일-영 텍스트 매칭 결과는 [그림 1]처럼 일본어 조판행 일련번호 구간, 내용 요약, 일본어 본문, 영어 본문, 영어 소스 약자, 영어 소스 조판행 일련번호 구간, 비고 등으로 정리하여 2차 데이터를 산출했다.<sup>6</sup>

마지막으로 여러 종의 텍스트 대응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2]의 예시처럼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3]

5 [그림 2]의 샌키그래프에 표시된 영어 소스 14종의 경우 서술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초출 다음부터는 약어로 지칭한다. 전체 서지사항과 약어의 대응관계는 참고문헌에 밝혔다.

6 모든 텍스트의 양적 계량은 조판 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ocr 과정에서 헤더나 페이지 표시 등의 오염이 행수 집계에 끼어든 경우도 있기에 3%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 일-영 문장을 매칭할 때 영어 문장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경우와 정보를 참조하여 축약, 각색한 경우가 함께 섞여 있다. 따라서 소스(출발)텍스트와 타깃(도착)텍스트의 행수 매칭은 문장의 일대일 대응이 아닌 참조의 범위를 대략적인 추세로 보여주는 것이다.

1	일본어 본문 ID	내용 요약	일본어 본문	영어 본문	영어 텍스트 소스	조판구간	비고
76	[775]-[782]	에마누엘의 2세의 [772][상83下-7] と備へる。然れども彼れは少り文學を好まず	772[상83下-7] と備へる。然れども彼れは少り文學を好まず	827-25-35 Such was the condition of Sardinia when 1862-Discourse	827-831:845-847		즉위 초에 왕으로서 기대를 받지 못함, 유명한 군인, 관
77	[783]-[790]	사르데냐의 3대 국 [781][상83下-16] たり。確乎飛躍天に在り大人を見るによらし。 / 1738-18-25 Yes, assuredly, Cavour was a Liberal of th	781[상83下-16] たり。確乎飛躍天に在り大人を見るによらし。 / 1738-18-25 Yes, assuredly, Cavour was a Liberal of th	1877-LifeCC	738-791		카보우르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적인 보수파와 급진적인
78	[791]-[803]	국회의 전쟁 지극 [790][상84上-4] の。エンマヌエルは如何なる政黨を捨てて此等の政	790[상84上-4] の。エンマヌエルは如何なる政黨を捨てて此等の政	5696-178-17 One of his first acts was to dissolve the 1862-Reminiscences	5296-5706		다수의 의원들이 병화 조약 비준을 거부하자, 에마누엘
79	[804]-[810]	다제국으로 내각 [804][상84上-18] エンマヌエルはダビヅロを總て宰相の位に即	804[상84上-18] エンマヌエルはダビヅロを總て宰相の位に即	1327-38-3 take : he accepted the part of liberal and 1877-LifeCC	1327-1333		다만 부상을 입은 채로 내각을 이끌며 헌법을 수호하고
80	[811]-[819]	에마누엘의 2세의 [810][상84下-3] め善んて共和国に遷じたり。驚く此時人あり。カ	810[상84下-3] め善んて共和国に遷じたり。驚く此時人あり。カ	1544-45-5 unaturally turned towards him who had 1877-LifeCC	1544-1552		누군가 카보우르를 추종하자 왕이 "기다라라, 때가 오던
81	[820]-[828]	제노바 공화국의 1 [820][상84下-13] ども又一方には猛烈なる共和黨の存在すること	820[상84下-13] ども又一方には猛烈なる共和黨の存在すること	11263-35-29 fiery city of Genoa. the town of Mazzini 1877-LifeCC	1356-1285, 1353-		노바라 패전 후 제노바에서 발생한 공화주의자들의 반
82	[829]-[842]	산타 로사의 죽음 [829][상85上-1] り。之より先きサンタ、ロサ農商務大臣に擧げら	829[상85上-1] り。之より先きサンタ、ロサ農商務大臣に擧げら	5891-184-14 The natural result of the death of Santi 1862-Reminiscences	1943		산타로사의 뒤를 이은 농상공부장은 1862-Re-. 디제글
83	[843]-[849]	내정개혁 첫째: 산 [843][상85上-15] 来るんとす。彼れは先づ内政改革の第一書と	843[상85上-15] 来るんとす。彼れは先づ内政改革の第一書と	12105-64-7 He felt that it was quite insufficient to m 1877-LifeCC	2105-2127		카보우르가 영국에서 배운 자유무역 정책을 도입하고 :
84	[850]-[857]	이탈리아 총리과 [850][상85下-1] まで農事に據れたる所以とす。然ども彼れの大臣	850[상85下-1] まで農事に據れたる所以とす。然ども彼れの大臣	2060-62-22 Two systems were possible — and how 1877-LifeCC	2060-2068:2084-		군비 확충과 중세의 불가지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
85	[858]-[861]	카보우르가 애국 [858][상85下-의] 之を嚴禁するの狀ありしも、其進身要領の賦に	858[상85下-의] 之を嚴禁するの狀ありしも、其進身要領の賦に	581-13-21 manage the springs of a country's wealth 1877-LifeCC	2554-2573		중세 정책에 대한 반발. 그러나 여인이 카보우르 존경하
86	[867]-[880]	카보우르의 저작 [867][상85下-13] 智識を用ふるなり。然れども其智識たるを。今日	867[상85下-13] 智識を用ふるなり。然れども其智識たるを。今日				어후 출하의 자유에 대해 카보우르의 신념과 정책 가치

[그림 1] 마쓰무라본과 영어 소스 매칭 데이터 일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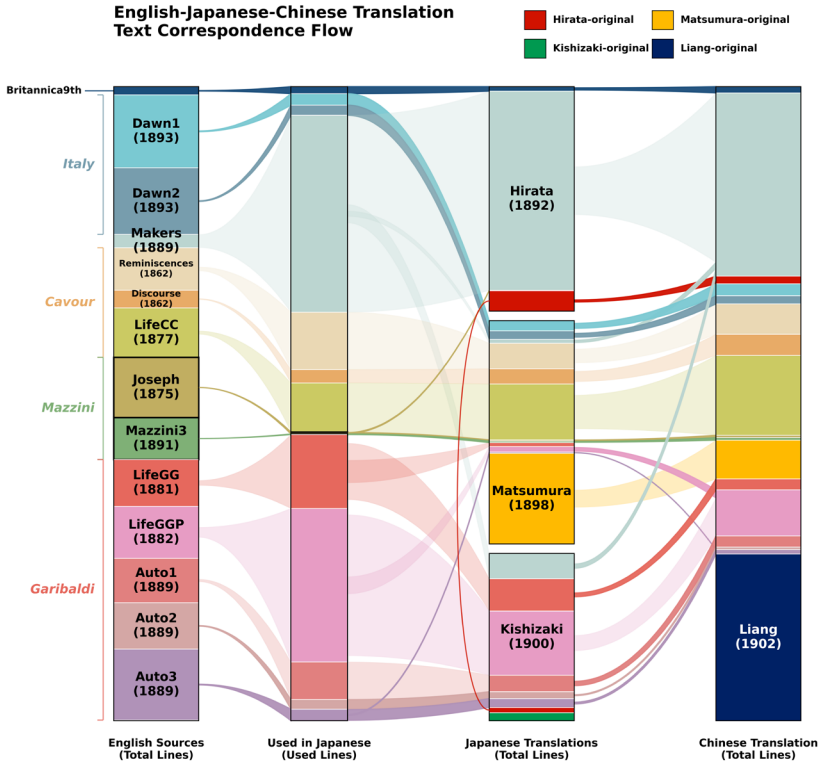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EN(역자)	EN 전체 행 수(B)	EN 전체 내 텍스트별 비중(EN 전체 행 수)	EN 사용 유 니크 행 수	EN 사용 내 텍스트별 비중(EN 전체 사용 행 수)	EN 텍스트별 사용 행 수 (N/B)	히라타 사용 행 수	히라타 분 배	히라타 중 EN 매 정JP행 수	히라타 내 비중	마쓰무라 사용 행 수	마쓰무라 분배	마쓰무라 중 EN 매정JP 행 수	마쓰무라 내 비중	마쓰무라 사용 행 수	마쓰무라 분배	기시자키 사용 행 수	기시자키 중 EN 매정JP 행 수	기시자키 내 비중
1																			
3	Britannica9th	1759	1.3	104	1.1	5.9	104	100	40.8	2	0	0	0	0	0	0	0	0	0
4	Dawn1	15880	11.5	168	1.8	1.1	0	0	0	0	168	100	92	4.6	0	0	0	0	0
5	Dawn2	14505	10.5	148	1.6	1	0	0	0	0	148	100	75	3.8	0	0	0	0	0
6	Makers	2881	2.1	2818	30.9	97.8	2818	100	1766	88.7	77	2.7	34	1.7	263	9.3	217	15.1	
7	Reminiscenci	9343	6.7	821	9	8.8	0	0	0	0	821	100	225	11.4	0	0	0	0	0
8	Discourse	3829	2.8	196	2.1	5.1	0	0	0	0	196	100	137	6.9	0	0	0	0	0
9	LifeCC	10851	7.8	706	7.7	6.5	0	0	0	0	706	100	496	25	0	0	0	0	0
10	Joseph	13201	9.5	31	0.3	0.2	15	48.4	4	0.2	16	51.6	10	0.5	0	0	0	0	0
11	Mazzini3	9145	6.6	11	0.1	0.1	0	0	0	0	11	100	14	0.7	0	0	0	0	0
12	LifeGG	10239	7.4	1058	11.6	10.3	0	0	0	0	323	30.5	35	1.8	806	76.2	277.5	19.3	
13	LifeGGP	11377	8.2	2198	24.1	19.3	0	0	0	0	247	11.2	48	2.4	2018	91.8	551	38.4	
14	Auto1	9753	7	539	5.9	5.5	0	0	0	0	0	0	0	0	539	100	142.5	9.9	
15	Auto2	10171	7.3	135	1.5	1.3	0	0	0	0	0	0	0	0	135	100	59	4.1	
16	Auto3	15526	11.2	167	1.8	1.1	0	0	0	0	12	7.2	12	0.6	155	92.8	75.5	5.3	
17	Hirata	0	0	26	0.3	0	0	0	0	0	0	0	0	0	26	100	41.5	2.9	
18	합계	138460	100	9126	100	6.6	2937	32.2	1810.8	90.9	2725	29.9	1178	59.5	3942	43.2	1364	95	
19	Hirata-origin	0	0	0	0	0	0	0	181.2	9.1	0	0	803	40.5					
20	Matsumura-c	0	0	0	0	0					0	0							
21	Kishizaki-orig	0	0	0	0	0									0	0	72	5	

[그림 2] 샌키그래프용 통계 일부(영-일 매칭 1, 2, 3열)

의 샌키(Sankey) 그래프를 제작<sup>7</sup>하였다.

샌키그래프는 섹터 간 데이터 이동의 방향과 양을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노드(각 막대 안의 세그먼트)와 링크(노드간 연결 밴드)로 구성된다. [그림 3]에서 샌키그래프의 1열 막대는 일본어 3종에 활용된 영어 소스 14종을 텍

7 ① 일어 3종-영어 14종 매칭 데이터 3개([그림 1]의 예시)와 일어 3종-중국어 매칭 데이터 1개를 읽어 ② 각 텍스트 간 대응 행수를 집계하고, ③ 이를 [그림 2]처럼 샌키그래프 시각화(노드별 크기, 연결 밴드의 출발점 및 도착점 넓이 등)에 사용될 각종 통계 데이터로 가공한 후, ④ [그림 3]의 샌키그래프를 생성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단일 코드로 구현하였다.



[그림 3] 영-일-중 텍스트 매칭 샌키그래프

스트 전체 분량 비중([그림 2]의 C)에 따라 분절된 것이고, 2열 막대는 일본어본에 실제로 사용된 분량 비중(E)에 따라 분절된 것이다. 예컨대 선행 연구가 주목한 *Makers*는 전체 행수가 2,881행(B)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저작이기에 1열 막대에서는 2.1%(C)에 해당하는 작은 세그먼트로 표현되지만, 그 대부분이 일어 3종에 활용되었기에 사용된 비중(E, 30.9%)을 나타내는 2열 막대에서의 크기는 여타 소스들을 압도한다. 반면 마치니 전기인 *Joseph Mazzini: A Memoir*(이하 *Joseph*)은 전체가 1만 3,201행(B)이나 되는 두꺼운 저작이지만, 그중 31행(D) 정도만 히라타본과 마쓰무라본에 나뉘어 사용되었기에 2열 막대에서 해당 노드는 0.3%(E) 비중의 얇은 띠로 겨우 가시화

되었다.

2열에 표시된 각 소스의 사용분은 3열의 일본어 3종 막대에 각기 사용된 비중만큼 분배된 후 이를 매개로 4열의 중국어본까지 연결된다. 한편 막대들을 연결하는 링크의 출발점 넓이는 출발 노드에서의 유출량의 비중을, 도착점의 넓이는 도착 노드에서의 유입량의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he Life of Giuseppe Garibaldi*(이하 *LifeGG*)는 전체 1만 239행(B) 중 1,058행이 사용되었기에 해당 노드의 1열에서 2열로 연결되는 밴드의 출발점은 노드 크기의 10.3%(F) 정도인 가는 띠로 표현된다. 이 1058행은 일부 중복 사용행을 포함하여 마쓰무라본에 323행(K), 기시자키본에 806행(O) 유출되었다. 샌키그래프 2열의 *LifeGG* 노드에서 3열의 마쓰무라, 기시자키 막대로 갈라지는 2개 링크의 출발 넓이는 각각 그 유출량의 비중 30.5%(L), 76.2%(P)을 표현한다. 한편 *LifeGG* 유입분이 마쓰무라와 기시자키 텍스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N)와 19.3%(R)였고, 이는 3열 마쓰무라와 기시자키 막대에서 *LifeGG* 노드의 크기로 표현된다.

이상의 원리로 제작된 샌키그래프를 참조하여 일본어 텍스트가 영어 소스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변형했으며, 이를 통해 각기 어떤 ‘이탈리아 로망스’를 구축했는지 각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2. ‘팽창적 국민’과 전쟁의 서사:

### 히라타 히사시의 『이태리건국삼걸』

샌키그래프에서 히라타의 『이태리건국삼걸』은 3열 맨 위의 막대그래프에 해당한다. 히라타본은 기본적으로 *Makers*의 번역이지만, 손성준이 밝힌 것처럼 *Makers*에 없는 역사 및 인물 정보도 일부 추가되었다.<sup>8</sup> 텍스트 매칭

— [www.kci.go.kr](http://www.kci.go.kr)

8 손성준(2007a), pp. 49-80.

결과 이 정보들은 대부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9판<sup>9</sup>의 「마치니」, 「카보우르」, 「이탈리아」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0</sup> 이 밖에도 마치니 전기인 *Joseph*에서 극소량의 정보가 유입되었다.<sup>11</sup> 히라타의 독자 서술은 주로 강조를 위한 수사적 표현이거나 이탈리아 통일사를 일본 역사와 연결 짓는 시사적 논평들이다. 전체 1,992행 중 각 소스의 비중은 *Makers* 88.7%, 브리태니커(*Britannica*) 2%, *Joseph* 0.2%, 히라타 독자 서술 9.1%로 집계된다.

그런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히라타가 삼걸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참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저자인 메리어트의 삼걸 평가에 핵심적인 프레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9 메리어트는 각주가 아닌 부록에서 몇몇 다른 참고문헌과 함께 “브리태니커 최신판의 「이탈리아」(J. A. Symonds), 「마치니」, 「카보우르」 항목을 참조했다고 밝혔는데, 다른 항목과는 달리 「이탈리아」 항목의 저자인 시몬즈만 병기한 것도 특징적이다. 메리어트가 언급한 브리태니커 최신판은 1875년부터 출간되어 *Makers*가 출간된 해인 1889년까지 총 25권으로 완성된 브리태니커 9판을 가리킨다. 1892년 출간된 히라타본 역시 같은 판본을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0 예를 들어 히라타본 21:1-2행의 마치니 생년월일, 21:8-10행 마치니의 어린 시절 학업, 24:7-9 이탈리아 문학계의 북고주의에 대한 마치니의 반항, 27:4-7 마치니가 감옥에서 일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내용은 모두 브리태니커 9판의 “Mazzini” 항목에서 추가한 정보들이다. John Sutherland Black (1883), “Mazzini, Giuseppe”, *Encyclopædia Britannica* (9th ed.) vol. 15, Edinburgh: A. & C. Black, pp. 654-656.
- 11 3걸 모두 공명과 권세에 연연하지 않는 미덕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 중 마치니와 관련한 대목이다. “彼は實に千八百四十八年、ロンバーデーの暴徒蜂起するを見、走つて之に投せんとするの際、サルチニヤ王が其歡心を得ん爲めに拜して首相となし、且つ其の意に任せて、피드몬토ー、ロンバーデー國の憲法を制定するを許さんとの使を受けて容れざることありき、” 平田久(1892), p. 132; “A messenger was sent to him from the camp, to propose that he should constitute himself patron of the royal scheme of uniting Lombardy to the crown, offering him, in that case, power to draw up the constitution of the new “kingdom of the north,” an interview with the king, and the position of first minister of the crown.” Emilie Ashurst Venturi (1875), *Joseph Mazzini: A Memoir*, London: H. S. King & Co., p. 83.

마치니가 불어넣은 새로운 종교적 열정에 버금가는 열광 없이는, 가리발디의 눈부신 업적과 그와 함께 싸우며 그의 신성한 불꽃을 느낀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이 순수한 영웅이 불러일으킨 이상화 없이는, 카보우라도 통일 이탈리아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 유럽의 신뢰, 지지, 동정을 얻을 카보우르가 없었다면, 만약 그가 견실한 일처리 능력과 모든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마치니의 노력은 의심스러운 반란들로 낭비되었을 것이고, 가리발디의 무훈은 비생산적인 애국심의 역사에 단지 한 챕터를 더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걸들이 각자 이탈리아 재건의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불화와 알력을 잊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탈리아 통일의 건설자’(maker of Italian unity)라는 존칭을 씌우지 않을 수 없는 이는 실로 카보우르 그 사람이다.(필자 번역)<sup>12</sup>

인용문은 *Makers*의 삼걸 평가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근대 이탈리아의 건설자』(*Makers of Modern Italy*)라는 책 제목이 이 대목에서 유래했을 뿐 아니라, 본고에서 다룰 일본어 3종 텍스트를 관통하는 카보우르 중심의 평가가 이 프레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핵심 구절

12 “Without the enthusiasm amounting to the passion of a new religion which Mazzini inspired, without Garibaldi’s brilliant achievements and the idolatry excited by this pure-hearted hero in the breasts of all who fought with him and felt his sacred fire, there is little doubt that Cavour would not have found the creation of united Italy possible. But if Cavour had not been there to win the confidence, support, and sympathy of Europe, if he had not been recognised as a man whose work was solid and whose sense was just in all emergencies, Mazzini’s efforts would have run to waste in questionable insurrections, and Garibaldi’s feats of arms must have added but one chapter more to the history of unproductive patriotism. While, therefore, we recognise the part played by each of these great men in the liberation of their country, and while we willingly ignore their differences and disputes, it is Cavour whom we must honour with the title of the maker of Italian unity.” Marriott (1889), p. 78.

은 메리어트 자신의 글이 아닌 인용문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메리어트는 각기 ‘정치가, 예언자, 십자군’의 역할을 했던 세 영웅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이 난제를 ‘당대의 문호’(a living pen)가 이미 결정적으로 완수했다는 소개와 함께 이 대목을 인용했다. 조사 결과 해당 대목은 시몬즈(J. A. Symonds)가 집필한 브리태니커 9권의 「이탈리아」 항목에서 인용한 구절이었다.<sup>13</sup> 시몬즈는 일곱 권에 달하는 대작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집필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다. 메리어트와 시몬즈는 옥스퍼드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메리어트의 *Makers* 역시 옥스퍼드 대학 강연을 토대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메리어트가 시몬즈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시 청중은 그가 지칭한 ‘당대의 문호’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연결점은 *Makers*가 어떤 지적 계보 위에 놓여 있었는지 밝혀준다. 시몬즈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역사를 중세의 암흑과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정신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당대의 ‘휘그 사관’(Whig historiography)<sup>14</sup>과 상통한다. 빅토리아 시대 대영 제국의 자부심에 기반한 휘그 사관은 민중 주도의 민주주의나 프랑시스 혁명의 ‘무질서’(anarchy)를 경계하고, 영국식 입헌왕정이야말로 역사적 진화의 정점이라고 간주했다. 야만에서 문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휘그사관의 일직선적 역사관은 필연적으로 민족, 인종, 국가 간의 문명론적 위계를 내포한 사회진화론과 맞닿아 있었다. 인용한 시몬즈의 3걸 평가에는 이러한 휘그 사관이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카보우르가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점진적 개혁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의 “신뢰, 지지, 동정”을 얻지 못했다면, “마치니의 노력은 의심스러운 반란들”에 불과하고, “가리발디의 무훈은

13 John Addington Symonds (1881), “Italy: Achievement of Independence,” *Encyclopaedia Britannica*, 9th ed., vol. 13, Edinburgh: A. & C. Black, p. 487.

14 안두환(2021), 「케임브리지 학파의 지성사와 역사주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55, 한국정치학회, pp. 60-61.

비생산적인 애국심"에 그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시몬즈에게 마치니의 공화주의는 진화의 초기 단계인 '종교적 열정'에 불과했으며, 가리발디의 무력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야생의 힘이었다. 반면 입헌왕정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했던 카보우르는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근대적 국가라는 '형태'(form)를 부여한 진정한 '건설자(Maker)'로 격상된다.

메리어트의 *Makers*는 시몬즈가 압축적으로 표현한 삼걸 평가를 서사 전체로 확장한다. 카보우르의 생애가 일관된 호의와 예찬으로 서술되는 반면, 마치니와 가리발디에 대해서는 저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양가적 서술이 빈번히 등장한다.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가 '교육과 폭동'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방침에 대해, 메리어트는 "그 병치(collocation)에 웃음 지을 수도 있다"라는 냉소적인 평을 덧붙였다. 마치니가 카르보나리 운동의 실패 원인을 "유력 계층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찾았다는 대목을, 메리어트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와 함께 전달한다.<sup>15</sup> 가리발디의 행적에 대해서도 메리어트의 호불호는 명확했다. 가리발디가 남부 이탈리아를 에마누엘레 왕에게 '헌납'한 순간은 전 생애에서 "가장 눈부신" 장면으로 부각되지만, 말년에 공화주의자로서의 급진적 행보는 없었으면 좋았을 군더더기로 취급 받는다. 1862년 가리발디가 로마로 진격하다가 사르데냐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던 아스프로몬테 사건 역시 "부상당한 장군이 정부에게 얼마나 끔찍한 골칫거리였는가"<sup>16</sup>라는 관점에서 찝막하게 언급될 뿐이다. 요컨대, *Makers*는 마치니의 면모를 자유를 제창한 예언자적, 도덕적 사상가

15 "we may smile at the collocation" Marriott (1889), p. 16; "The Carbonari movement had hopelessly failed, as it deserved to fail, though not perhaps for the particular reasons which Mazzini attributed its failure. To Mazzini's thinking it had leaned too much on the support of the 'educated, influential classes.'" Marriott (1889), p. 15.

16 "We are now in a position to deal with the most splendid episode in Garibaldi's whole career, an episode, indeed, than which none more splendid is to be found in the annals of recorded history." Marriott (1889), p. 62; "The wounded chieftain was a terrible embarrassment to a Government already somewhat discredited," Marriott (1889), p. 70.

로 한정하는 한편 가리발디를 왕에게 충성스러운 근왕주의자로 각색하고, 영국의 보수적 자유주의를 초과하는 행적과 사상은 삭제하거나 부정적 평가와 함께 전달했다.

*Makers*를 거의 완벽한 히라타본에 이러한 휘그사관의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히라타가 단순히 원저의 내용과 관점을 수동적으로 중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마이 히로시(今井宏)나 피터 두스의 연구가 밝혔듯, 민유샤는 메이지 일본에 휘그 사관을 도입한 선구적 집단이었다.<sup>17</sup> 이런 점에서 *Makers*의 번역본을 도쿠토미 소호의 서문을 엮어 민유샤에서 출간한 것 자체가 일종의 담론적 기획이었다. 메리어트가 이탈리아 역사를 영국의 보수적 자유주의가 구현된 로망스로 다시 썼듯이, 히라타는 이탈리아 건국사에 일본의 역사를 겹쳐 놓음으로써 민유샤 그룹의 정치적 비전을 투사했다. 히라타가 특별히 『신일본사』를 인용한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본래 협애(狹隘)한 지방적 애국 관념을 초연히 벗어나, 멀리 전 반도의 통일에 희망을 건 마치니의 무리는 여기저기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興望)이자 각 사람의 가슴속에 사무친 초미(焦眉)의 요구는 결코 '통일'이 아니었고, 단지 '자유'였을 따름이다. 근래 『신일본사』(新日本史)의 저자는 우리나라 유신 혁명을 논하며, “무진(戊辰)·경응(慶應)의 혁명은 새로운 정치를 이상으로 삼는 이상적 혁명도 아니요, 왕조를 회고하는 복고적 혁명도 아니다. (...) 현재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폭발하여 사회 자체가 붕괴하려 했던 난세적 혁명이자 우여곡절 끝에 우연히도 외교 관계 때문에 유신(維新)이라는 물가에 밀려 올라온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

17 今井宏(1974), 「明治時代におけるホイッグ史観の受容」, 『東京女子大学附属比較文化研究所紀要』第35巻, pp. 1-19; Peter Duus (1974), “Whig History, Japanese Style: The Min'yūsha Historians and the Meiji Restor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3(3), pp. 415-436.

다. 또 근왕론(勤王論)을 이 혁명의 큰 원인으로 보는 피상적이고 우월(迂闊)한 선비들의 견해를 배척하며, “근왕은 대혁명의 원인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의 활력인 대혁명에서 흘러나온 결과이다”(『신일본사』 중 6~32쪽)라고 단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유신 혁명의 폐부(肺腑)를 찌르는 말임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옮겨와 이탈리아 혁명의 진상을 묘사한 결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의 저작인 『신일본사』는 1891년과 1892년 민유사에서 상·중편이 각각 출간되었다. 당시 일본 사학계는 자유민권운동의 퇴조로 문명사가 쇠퇴하고, 관학 아카데미즘은 고종적·실증적 연구에 매몰되어 대중과 유리되었으며, 국학 계열은 국체론적 신화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신일본사』는 문명사적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일본 근세사를 ‘국민 창출’의 과정으로 재해석한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받는다.<sup>19</sup> 발매 2년 만에 7쇄를 거듭하며 1만 부 이상 판매된 대중적 인기뿐만 아니라, 도쿠토미 소호의 국민주의 사상을 근세사 서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사상사적 의미가 깊다.

“존왕은 대혁명의 원인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의 활력인 대혁명에서 흘

18 “素より狹隘なる地方的愛國の觀念の上に超然と卓出し遙かに望を全半島の統一に掛けたマツヂニーの徒は此處彼處に點々散布せり。されど國民の與望、各人の胸中に浸み渡りたる焦眉の要求は決して統一にあらず、只だ自由なりし也。近時新日本史の著者が我邦維新の革命を論して『戊辰慶應の革命は、新政を理想する理想的革命にもあらず、王朝を回顧する復古的革命にもあらず(…)現在の痛苦に堪へずして發し社會自身土崩瓦解せんとする亂世的革命にして、轉々の際偶然にも、外交のために維新の波際に打ち上られしもののみ』と云ひ、勤王論を以て此の革命の大原因なりとする皮想的迂儒の見を斥けて『勤王は大革命の原因にあらず、却つて國民の活力たる大革命より流出せる結果なり』(新日本史中六頁-三十二頁)と斷-たるは我邦維新革命の肺腑を貫きたる言にして移して以て伊太利革命の眞相を描き出したる斷案となすを得べし。” 平田久(1892), p. 54.

19 함동주(2004), 「竹越與三郎와 1890년대 전반기 일본의 역사상」, 『일본역사연구』 20, 일본사학회, pp. 103-122. 이 논문에서 ‘문명사’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文明論之概略』, 다구치 유키치(田口卯吉)의 『日本開化小史』 등을 일컫는다.

러나온 결과"라는 구절은 국민 중심의 역사관으로 메이지 유신을 재평가한 『신일본사』의 핵심 대목이다. 원인과 결과에 관한 두 명제가 결합된 이 문장은 중층적인 함의를 지닌다. 첫째, 메이지 혁명의 원동력이 '자유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케코시는 휘그 사관을 메이지 유신에 적용하여 자유를 향한 진보이자 국민 창출의 역사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근세/근대를 문명 개화라는 '보편사적' 흐름 위에 자리매김한다. 둘째, '존왕'은 자유를 추구한 국민적 열망이 도달한 필연적 귀결이라는 명제로, 이는 곧 메이지 유신으로 확립된 천황제 국체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탈리아 통일사는 이 두 명제가 모순 없이 결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최적의 내러티브로 활용되었다. 이 내러티브에 따르면, 외세와 봉건적 압제에 저항하던 이탈리아 인민은 거듭된 실패 끝에 역설적인 깨달음에 도달한다.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적 자유는 강력한 통일 국가 수립을 통해서만 보장되며, 그 통일은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결집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과연 국민적 자유의 확장과 천황을 구심점으로 한 국가적 통일이라는 과제는 모순 없이 결합될 수 있을까? 마루야마 마사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의 국민적 확산과 (권력)의 국가적 응집이라는 "두 계기가 과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sup>20</sup>할 수 있을까? 이런 사상사적 질문에 쉽게 일반화하여 답할 수는 없겠지만, 히라타의 번역은 적어도 1892년이라는 시점에서 민유샤의 평민주의가 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잃고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① 마치니와 카보우르의 역할을 균형과 통합보다는 '대체'의 플롯으로 조직하고, ② 삼걸을 통어(統

20 마루야마 마사오(1995), 김석근 역, 「국민주의의 전기적(前期的) 형성」, 『일본정치사상사 연구』, 통나무, pp. 509-514. 마루야마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 봉건적 통치와 외세를 극복하려는 국민주의의 맹아가 싹텄으나 "정치력의 국가적 응집(concentration)과 "국민적 확산(disdistribution)이라는 두 계기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한 채 국가의 강화라는 일방향으로 치우쳐갔다고 평가한다.

御)하는 왕의 주권적(sov<sup>er</sup>ign) 권력을 부각시키며, ③ 국민/국가의 내적 통합의 과제를 외적 팽창을 통해 해소하려는 욕망을 투영한 전쟁 서사로 구현된다.

① 우선 히라타가 『신일본사』를 인용한 텍스트적 맥락에 주의해 보자. 이 대목은 1848년 혁명 실패 후의 시점에서 「마치니」 장을 서둘러 끝맺고, 「카보우르」 장 초두에서 마치니의 시대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뒤에 등장한다. 마치니는 인민의 ‘자유’와 ‘통일’의 열망을 일깨웠지만, 무엇보다 자신(로마공화정)의 실패를 통해 그 열망이 강력한 입헌왕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기여했다는 논리다. 이로부터 ‘하늘이 예비’해 둔 진정한 이탈리아 ‘건설자’ 카보우르의 시대가 개막된다. *Makers*부터 이어지는 이 서사 구조는 마치니와 카보우르를 동시대의 사상적 경쟁자가 아니라 통시적 흐름 속에서 대체의 플랫폼으로 조직한다.<sup>21</sup>

② 그런데 손성준의 연구도 주목한 것처럼 히라타본은 *Makers*보다 삼걸의 상보성을 강조하고, 삼걸 모두를 통어하는 에마누엘레 왕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히라타는 카보우르를 ‘유일한 건설자’로 꼽은 시몬즈의 인용문 바로 뒤에, ‘혁명의 대서사’에는 서막의 예언자, 본막의 대협객, 대단원을 장식하는 정치가라는 “세 종류의 배우”가 모두 필요하다는 논평을 덧붙인다. 씨 뿌리는 마치니, 열매를 거두는 가리발디, 수확을 온전히 지키는 카보우르라는 비유<sup>22</sup> 또한 이들의 상보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삼걸의 서로

21 량치차오는 같은 대목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사론을 덧붙여 혁명과 입헌을 대체가 아닌 인과적, 상보적 관계로 재구성한다. ‘혁명이 없으면 입헌도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다. 윤영실(2026), 「지식의 편집, 사상의 변환: 량치차오의 『의대리건국삼걸전』 번역과 마치니 표상」, 『동악어문』 98, 동악어문학회 참조.

22 “曰く革命の大話劇には三種の役者あり、豫言者先づ來つて其の序幕を演じ、大俠客次ぎに來つて本幕を演じ、政治家最後に来つて打ち出しを演ずとの教訓を得たり、伊太利建國の歴史此の如し、日本維新の歴史此の如し、革命と云ふ革命、進歩と云ふ進歩、此の三種の役者を待つて完成せられざるものなし、マツヂニーは地を耕し、種を播き、木を育てたり。ガリバルヂーは熟せる質を蒐め、カプーレは收穫の利益を全ふせり。” 平田久(1892), p. 151.

다른 지향과 활동은, 오직 '왕'이라는 지상(至上)의 주권적(sov<sup>er</sup>ign) 권력에 복속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배치된다. 히라타는 또 다른 독자 서술 부분에서 이 점을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했다.

참으로 이(남이탈리아의 통일-인용자)는 이탈리아의 세 열룡(孽龍)—마치 니, 카보우르, 가리발디—이 빅토리오 에마누엘레의 황금 사슬에 묶여 풍운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세상에 다시 없을 기이한 광경이다.<sup>23</sup>

'열룡'(孽龍)<sup>24</sup>은 본래 재앙이나 요물을 뜻하는 부정적 함의를 띤다. 히라타가 삼걸을 굳이 '열룡'에 비유한 것은 혁명적 사상가, 불굴의 협객, 지략의 정치가인 삼걸의 강력한 힘이 자칫 서로에게, 나아가 체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황금 사슬'은 이들의 힘을 하나로 묶고 제어하여 마침내 통일이라는 지고의 목표(登天)를 성취해 낸 에마누엘레 왕의 리더십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히라타가 메리어트보다 삼걸의 상보적 역할을 더 강조했다 한들, 그들 사이의 근본적인 위계가 뒤바뀐 것은 아니다. 카보우르는 애초부터 '근왕'을 통한 통일이라는 '올바른' 목표에 매진했기에 다른 두 영웅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 다만 카보우르의 지략조차 나폴레옹 3세의 배신(빌라프랑카 조약)이나 니스 할양을 둘러싼 가리발디와의 갈등에서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 실패를 부분적 성공으로 전화(轉化)시키고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역할은 에마누엘레 왕의 몫이었다.

1889년 헌법 제정과 1890년 의회 개설로 입헌왕정 체제의 형식을 갖춘

23 “正に是れ伊太利の三孽龍、マツヂニー、カブール、ガリバルディーがウイクトル、エムマニエルの金鎖に制せられ、風雲に乗して天に達する絶世の奇観也。” 平田久(1892), p. 97.

24 ‘孽’의 부정적 용법은 『書經』, 『商書·太甲中』의 다음 구절이 대표적이다. “天作孽, 猶可違, 自作孽, 不可道.”(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열룡’(孽龍)이 수해나 재앙을 일으키는 요괴로 등장하고 이를 ‘사슬’로 제압하는 서사는 『警世通言』 제40권 「旌陽宮鐵樹鎮妖」를 비롯한 도교풍 소설들에 종종 보인다.

메이지 일본에서 ‘왕’을 정점으로 한 삼걸의 상보성 강조는 일종의 ‘국민’ 통합 메시지로 발화되었다. 히라타는 마치니를 막부의 봉건적 억압에 맞서 자유를 추구한 혁명가이자 근왕주의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등치시킨다.<sup>25</sup> 또한 정부와 대결할 때조차 왕에 대한 충정을 잃지 않는 ‘협객’으로 재현된 가리발디는, 흔히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에 비견되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라타가 삼걸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을 ‘통일 이탈리아’로 나아가는 서사적 단계로 배치한 것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구 막부 세력이나 자유민권운동가 같은 역사의 패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격한 잔존 세력을 천황제와 의회 정치의 제도적 틀 안으로 흡수하려는 것이다. ‘얼룡’과 ‘황금사슬’이란 세이난 전쟁(西南戰爭)과 자유민권운동을 거치며 극대화된 내적 갈등과 분열을 천황이라는 구심점에 의해 통일된 ‘국민’ 표상으로 봉합하려는 정치적 레토릭이었다.

③ 민유사 그룹의 평민주의가 저항적 야당성을 잃고 국가주의적 통합론으로 선회할 무렵, 이들의 ‘내적 통합’ 논리는 동시에 ‘외적 팽창’을 겨냥하고 있었다. 메리어트 원문의 번역 사이로 히라타의 ‘과열’된 목소리가 끼어드는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대외적 팽창의 욕망이 감지된다. 예컨대, 메리어트는 ‘교육과 폭동의 병치’라는 마치니의 방법론을 비웃었지만, 히라타는 “그 연결의 기발함이 시세에 대처하는 살아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타자를 치며 세 번 감탄하게 만든다”<sup>26</sup>라고 예찬했다. 히라타본에서 ‘폭동’의 첫걸음은 “증오스러운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는” 전쟁 추구와 연결된다. “피비(血雨)가 쏟아지는 참담한 전쟁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 폭발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하루만큼의 이득”<sup>27</sup>이라는 논리

25 “されど記憶せよ、我邦に革命の大鼓吹者、勤王の大傳道者吉田松陰等あり、伊太利に革命の大豫言者、國民統一の大説教者マツヂニーあり、共に時流の上に超絶して革命の教育、革命の大説教をなせしことを” 平田久(1892), pp. 55-56.

26 “教育と暴動とを同時に行ふ’にありと云ふに至つては其の聯結の奇なる、然も時に處するの活識ある人をして案を拍て三嘆せしむ。” 平田久(1892), p. 32.

27 “惡むべき澳地利を放逐するは其の第一着歩なりき、血雨慘憺たる戦争は避けんと欲して

다. 그리하여 메리어트가 우려하고 비웃었던 마치니의 대내 혁명과 봉기로서의 ‘폭동’은, 히라타의 문맥 속에서는 전통적 패권국에 대한 전쟁으로 독해된다.

‘세 얼룩(3걸)과 황금 사슬(에마누엘레 왕)’의 비유 역시 남부 이탈리아 정복을 한껏 미화한 수사였다. 이 대목은 카보우르의 ‘목인’ 아래 가리발디가 ‘독자적’으로 출병하여 시칠리아, 나폴리 등 남부 이탈리아 소공국들을 정복한 후 에마누엘레 왕에게 봉헌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무엇보다 히라타가 카보우르의 행적 중 가장 열광한 부분은 바로 크림 전쟁 참전이라는 결단이었다.

크림 전쟁은 빅토르 에마누엘레와 카보우르에게 있어 시금석이었다. 피에몬테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一擲乾坤)의 루비콘 강 도하(渡河)였다. 만약 그들이 마치 노파가 귀여운 손자를 걱정하듯 나라의 운명을 전전공공하며 걱정만 했다면, 애당초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 그러나 그들은 그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우 속에 돛을 올렸으며, ‘얼지 못하면 잃는’ 대도박의 주사위를 던졌다. 그들에게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겠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뒤에 모험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들이 만약 그 정도였다면, 애당초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sup>28</sup>

---

避くる能はず,其の破裂を早からしむること一日なれば一日の利あり” 平田久(1892), p. 32.

28 “クリミア戦争は,ウイクトル, エムマヌエル, カプールの試金石なりき. ピートモントの運命を賭す一擲乾坤のルピコンなりき. 彼等若し老婆か其の慈孫を氣遣ふ如く其の運命を氣遣ひたらんには, 素より云ふに足らぬなり (...) 而して彼等に其の連命を恐れず, 暴風怒濤は帆を擧げたり, 得ずんば失ふ的大賭博の骰子を投したり. 彼等何の頼む所あつて然るか. 頼む所あつて冒險をなすは誰しも能する所ろ, 彼等若し此の如くんば, 素より云ふに足らぬなり.” 平田久(1892), pp. 80-81.

카보우르는 1854년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르데냐 왕국의 크림전쟁 참전을 강행했으며, 승전 결과 사르데냐의 국제적 위상은 결정적으로 격상되었다. 그는 승전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결국 나폴레옹 3세를 끌어들이며 대(對)오스트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즉, 히라타가 주목한 카보우르는 단순히 온건한 개혁가나 외교가에 머물지 않았으며 과감한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를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히라타가 이탈리아의 크림전쟁 참전을 비장한 영웅적 결단으로 예찬한 대목은 일본의 맥락에서 ‘주전론’(主戰論)의 역사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카보우르가 전쟁을 통해 강대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듯, 일본 또한 과감한 무력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적 패권과 사대질서를 무너뜨리고 서양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역사를 거울삼아 일본의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도쿠토미 소호의 서문에서도 유사한 지향성이 감지된다. “슬픔 중에 나라 없는 슬픔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는 비탄으로 시작된 서문은, 어느새 “정예병 50여만, 군함 260여 척”을 거느린 열강 이탈리아에 대한 선망으로 변모한다. 이 같은 논조의 매끄러운 이행이 방증하듯, 『이태리건국살결』은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통일, 아시아를 향한 팽창의 욕망이 불가분하게 뒤얽혀 있던 메이지 역사의 변곡점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다.

### 3. 해방자 일본과 ‘동양 일통’(一統)의 서사: 마쓰무라 가이세키의 『카밀로 카보우르』

『카밀로 카보우르』<sup>29</sup>(이하 『카보우르』)는 1898년 잡지 『태양』(太陽)의 ‘역

— www.kci.go.kr —  
29 松村介石(1898), 「近代世界十代偉人(其一): カミロ, カブール」, 『太陽』, 1898. 1. 1.(上篇);

사와 지리’(歴史及地理)란 <근세세계십위인>(近世世界十偉人) 기획 중 첫 번째 순서로 상·하편에 걸쳐 연재되었다.<sup>30</sup> 저자 마쓰무라 가이세키는 청소년기에 기독교에 입문하여 목사가 되었으나, 서양 선교사들과 마찰을 겪으며 점차 동양주의로 기울어 1907년에는 동서양 제 종교를 통합한 ‘일본교회’를, 1912년에는 ‘도회’(道會)를 창시하기에 이른다. 『카보우르』를 썼던 1890년대에는 여러 잡지를 무대로 신앙·수신·역사·전기 등에 관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샌키그래프의 3열 중간 막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카보우르』는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참조해서 재구성한 저작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저본은 카보우르 전기 계열인 *Reminiscences of the Life and Character of Count Cavour*(이하 *Reminiscences*)와 *The Life of Count Cavour*(이하 *LifeCC*)<sup>31</sup>였다. 전자는 카보우르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지적 동반자”를 자처한 이종사촌 윌리엄 드 라 리브(William de la Rive)의 회고록으로, 카보우르의 인간적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 후자는 프랑스의 보수적 자유주의자 샤를 드 마자드(Charles de Mazade)의 저작으로 카보우르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개혁가로서 수행한 정치 활동을 상세히 다뤘다. 마쓰무라는 카보우르의 개인적 일화

1898. 1. 20.(下篇). 이하 본문에서는 마쓰무라본 혹은 『카보우르』로 지칭한다.

30 ‘십위인’ 기획은 카보우르 외에도 비스마르크, 디즈레일리, 고르차코프(러시아), 나폴레옹 3세, 사이고 다카모리, 쟁귀관(曾國藩), 코슈트(헝가리), 오스만 파샤(튀르키예), 해밀턴(미국) 등 동서양의 근세 영웅들을 폭넓게 아울렀다. 필진으로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 등 당대 정치·사상·언론계의 쟁쟁한 인물들이 참여했다. 이 기획물은 이후 『近世世界十偉人』(東京: 文武堂, 1900)라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는데, 본고에서는 『태양』 잡지본을 활용했다.

31 William De La Rive (1862), *Reminiscences of the Life and Character of Count Cavour*, Trans. by Edward Romilly, London: Longman, Roberts, & Green; Charles de Mazade (1877), *The Life of Count Cavour*, London: Chapman & Hall. 한편 Edward Dacey의 카보우르 전기는 일본 국회 및 주요 대학 도서관에 소장 기록이 없고 마쓰무라본에 직접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비교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책은 *Makers of Modern Italy*의 주요 참고문헌이라는 점에서 일본에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 Edward Dacey (1861), *Cavour: A Memoir*,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들 및 초기 사상 형성과 활동은 *Reminiscences*를 주로 참조했고, 장관과 총리로서의 정치 활동은 *LifeCC*의 정보를 활용했다.

두 저작 모두 프랑스어로 집필된 후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카보우르 전기가 유독 프랑스어권에서 출간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드 라 리브가 강조했듯 카보우르가 스위스-프랑스적 혈통과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데다, 이탈리아 독립사 자체가 제2제정기(나폴레옹 3세) 프랑스 역사와 긴밀히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 한 세기 동안 두 차례의 혁명(1789, 1848)과 제정, 왕정, 공화정을 오가며 정치적 격동을 겪었던 프랑스에서, 단 기간에 ‘안정적인’ 입헌 왕정을 이룩한 이탈리아와 그 주역인 카보우르의 정치는 실용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제2제정기였던 1862년과 파리 코뮌(1871)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1877년에 각기 카보우르 전기를 출간한 저자들에게, 급진 공화파인 마치니나 파리 코뮌에도 연루되었던 가리발디는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간주되었다.<sup>32</sup> 일찌감치 체제 안정을 이룬 영국에서 가리발디와 마치니가 정치적 급진성을 거세당한 채 ‘시적’(poetic)이고 낭만적인 대상으로 소비되었다면, 혁명이 늘 현실적인 위협이었던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혁명을 통제하는 질서의 수호자 카보우르야말로 ‘산문적’(prosaic)이고 실용적인 참조의 대상이 되었던 셈이다.<sup>33</sup>

32 가리발디는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지원하는 보주군단을 조직해 공을 세웠고 파리 코뮌에서 공화국의 수호자로 찬양받고 국민방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를 사양했으나, 그의 추종자들(Garibalian) 중에서는 파리 코뮌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들도 여럿 있었다. Gilles Pecout (2009), “The International Armed Volunteers: Pilgrims of a Transnational Risorgimento”, *Journal of Modern Italian Studies*14(4), pp. 413-426.

33 마자드의 책은 카보우르 가문의 프랑스적 계보, 이탈리아-프랑스의 정치적 우호 관계를 위한 카보우르의 신념, 산문적, 실용적 개혁가로서의 카보우르를 많은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다. “Geneva claimed him on his mother’s side, a de Sellon; and he was drawn to France by many relations — by the two sisters of his mother, who were married, one to the Duc de Clermont-Tonnerre (⋯) the other to the Baron d’Auzers, a gentleman of Auvergne.”(p. 6); “my opinion of the moral, intellectual, and political superiority of France⋯”(p. 15) “Camillo Cavour was neither a philosopher, an historian, nor a poet.

마쓰무라의 활용 대상에는 미국의 저작들도 포함되었다. 미국의 이탈리아계 지식인 빈센조 보타의 강연을 묶은 *A Discourse on the Life, Character, and Policy of Count Cavour*(이하 *Discourse*)<sup>34</sup>는 가장 간결한 카보우르 전기로서 마쓰무라가 서사적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보우르가 일찍부터 수상이 될 포부를 품은 일화나 에마누엘레 왕의 언행에 대한 몇몇 에피소드는 이 책에서 유입된 정보였다.<sup>35</sup> 한편 미국 저널리스트 윌리엄 세이어가 저술한 *The Dawn of Italian Independence* 1, 2권(이하 *Dawn1, 2*)<sup>36</sup>은 이탈리아 독립 운동의 초기 역사나 마치니 관련 일화를 서술할 때 활용되었다.<sup>37</sup> 마쓰무라본 초반에는 “마치니가 가리발디보다 한 살 어렸다”라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특정 연도에서의 삼걸 나이를 열거

---

His Liberalism was of a more practical kind.” Mazade, p. 20. “his very soul revolted against an antagonistic encounter between the Italians and the French (···) he had a profound belief in an alliance in the blood of the two countries; and more—a strong feeling of all that Italy owed to the Emperor.” Mazade, pp. 283-284.

- 34 Vincenzo Botta (1862), *A Discourse on the Life, Character, and Policy of Count Cavour*, New York: G. P. Putnam.
- 35 마쓰무라본과 *Discourse*의 매칭 내용과 페이지 정보를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카보우르가 젊은 시절 친구에게 후일 수상이 될 것을 장담[松村介石(1898), p. 상71; Botta(1862), p. 8], 에마누엘레 왕이 선왕의 양위 소식을 들은 후 오스트리아를 향해 칼을 뽑아 복수를 다짐[松村介石(1898), p. 상83; Botta(1862), pp. 25-26], 에마누엘레 왕이 모친과 부인의 반대에 고뇌하면서도 교회 개혁을 강행[松村介石(1898), p. 상87; Botta(1862), pp. 38-39].
- 36 William Roscoe Thayer (1892), *The Dawn of Italian Independence: Italy from the Congress of Vienna, 1814 to the Fall of Venice, 1849*. 2 vols,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 37 마쓰무라본 서두에 나오는 이탈리아 역사 개관은 세이어 책의 상당히 긴 내용을 몇몇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하고 있다[松村介石(1898), pp. 상65-상66; Thayer(1892), *Dawn1*, pp. 18-114]. 마치니가 어린 시절 제노바의 망명객을 만난 일화는 여러 책에 등장하지만 묘사의 디테일 면에서 세이어의 책과 가장 부합한다[松村介石(1898), p. 상66; Thayer(1892), *Dawn1*, p. 384]. 알베르트 왕이 5만 병력(원래는 6만)을 이끌고 삼색기를 만들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한 내용은 *Dawn2*에 나온다[松村介石(1898), p. 상77; Thayer(1892), *Dawn2*, p. 210]. 세이어는 *Dawn1, 2*에서 이탈리아 독립사를 초기 공화주의 운동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1911년 *Life and Times of Cavour*라는 두 권짜리 카보우르 전기를 출간하면서 확고히 카보우르 중심주의를 표방한다.

하는 문장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 오류의 출처가 바로 세이어의 책이었으며,<sup>38</sup> 이는 마쓰무라가 해당 텍스트를 참조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마쓰무라본은 카보우르 전기이지만 마치니와 가리발디에 대한 정보도 적지 않게 포함시켰다. 기시자키의 『가리발디』가 주저본으로 삼은 가리발디 전기 2종(*LifeGG*, *LifeGPP*)<sup>39</sup>뿐만 아니라, 마치니 전기나 저작들도 폭넓게 참조했다. 마치니가 런던 망명 생활 중 빈곤에 시달려 외투와 장화까지 전당 잡혔다는 일화는 마치니 전기(*Joseph*)에 나오는 회고다.<sup>40</sup>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의 동정을 샀다는 정보는 *Life and Writings of Joseph Mazzini* 3권(이하 *Mazzini3*)<sup>41</sup>에서만 발견된다. 워낙 단편적인 정보이지만 그 구체성을 고려할 때 마쓰무라가 임의로 창작하거나 다른 개설서에서 취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마치니의 사상을 설명하는 대목들<sup>42</sup>은 마쓰무라 특

38 “マヂニーはガリバルデーより若きこと一歳”, 松村介石(1898), p. 상66; “Mazzini was born in Genoa in 1808.” Thayer(1892), *Dawn1*, p. 384. 세이어는 마치니가 1808년생이라고 기술했으며 마쓰무라는 이에 근거해 마치니가 가리발디보다 1살 어리다고 계산했다. 실제로는 마치니가 1805년생으로 1807년생인 가리발디보다 2살 연상이다.

39 가리발디 전기 2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상술하고자 한다.

40 “英國に在て大困窮に陥り、外套を典し、長靴を典し、時計を典して遂に支ふるところを得ず” 松村介石(1898), p. 상73; “until one Saturday I found myself obliged to carry an old coat and a pair of boots to one of the pawnbroker’s shops” Ventury(1875), p. 62.

41 영국 정부가 망명 중인 마치니의 서신을 검열했다는 것이 폭로되었을 때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 정부를 비판하고 마치니를 옹호하기 위해 *Times*에 서신을 보내 영국 사회의 공감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尤もマヂニーは爾來英國に於て雑誌の論文記者となり、己の理想のある處を世に訴へ、かねて伊太利のために同情を求めつつありしかば、程なくトーマス・カライルの識る處となり、從て上流社會に紹介せられ、其名遂に英國に擧るに至れり”, 松村介石(1898), 상74; “The following letter, sent by Thomas Carlyle to the *Times* newspaper on this occasion will be read with interest by all Englishmen: To the Editor of the *Times*, SIR, In your observations in yesterday’s *Times* on the late disgraceful affair of M. Mazzini’s letters and the Secretary of State, you mention that M. Mazzini is entirely unknown to you, entirely indifferent to you…” Giuseppe Mazzini(1891), *Life and Writings of Joseph Mazzini*, Ed. by Emilie Ashurst Venturi, vol. 3, London: Smith, Elder & Co., p. 189.

유의 표현으로 각색되어 원문 문장과 직접 대응시키기는 어렵지만, 마치니 전기의 부록이나 저작집에 실린 마치니 글을 직접 읽지 않고서는 결코 쓸 수 없었을 것이다.<sup>43</sup>

중요한 점은 마쓰무라가 마치니 계열의 소스들을 이토록 폭넓게 참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방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샌키 그래프에 포함된 14종의 영어 텍스트 중 마치니 계열 2종과 가리발디 자서전 3종은 정치사상 면에서 다른 텍스트들과는 이질적이었다. 마치니 전기의 저자이자 저작집 편집자인 에밀리 벤투리(Emilie Ashurst Venturi)는 영국의 마치니 지지 그룹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애셔스트 가문<sup>44</sup>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번역가이자 작가, 여성 참정권 운동가로서 마치니와 평생을 함께한 동지였다. 따라서 그녀가 쓰고 편집한 텍스트 속의 마치니는 영국이나 메이지 일본의 주류 서사가 그려낸 '도덕적 사상가'나 '몽상적 이상주의자'라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벤투리의 마치니 전기는 그가 주도하거나 혹은 반대했지만 동지들이 결행한 "모든 봉기 현장에 예외 없이 함께했던"<sup>45</sup> 마치니의 행적을 충실하게 복원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니 전기를 참조했음이 분명한 히라타본과 마쓰무라본은 이런 내용을 거의 전달하지 않는다. 군주제 타도를 외친 비타협적 공화주의자, 게릴라전과 민중 봉

42 松村介石(1898), p. 상68.

43 마쓰무라본의 소스는 샌키 그래프에 포함된 텍스트 이외에도 추가될 여지가 많다. 가령 크림전쟁의 구체적 사상자 수를 언급한 부분은 당시 일본에서 출간된 전기(戰記)류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며, 카보우르가 군인을 그만둔 후 16년간 래리에서 은거하는 대목의 서술 방식은 브리태니커의 「카보우르」 항목과 유사하다. 그 밖에도 아직 소스가 밝혀지지 않은 작은 정보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다.

44 Allison Scardino Belzer (2015), "Three Generations of Unconventional Family Values: A Case Study of the Ashursts", *Journal of Victorian Culture* 20(1), pp. 1-19.

45 "It may be well to declare here, once for all, with regard to the many insurrections planned or assisted by Mazzini during his life of incessant struggle and sacrifice, that, without one single exception, he was ever on the spot and took personal part in the danger of every movement initiated by himself, as well as in many of which he had disapproved as immature or injudicious." Benturi (1875), p. 103.

기를 독립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실천했던 ‘혁명가 마치니’에 관한 정보는 번역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진 셈이다. 마쓰무라가 굳이 마치니 전기까지 참조하며 가져온 정보는 고작 마치니의 무모한 봉기가 얼마나 무익했으며 그의 개인적 곤궁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부각시키는 맥락에서만 사용되었다. 그 결과 마쓰무라본의 마치니는 *Makers*-히라타본보다 그 의미가 훨씬 축소되어, “한갓 망명자의 생활”로 시종일관하며 정작 “이탈리아 혁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sup>46</sup> 무력한 인물로 평가절하된다.

하지만 마쓰무라의 마치니 평가가 언제나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카보우르』를 출간하기 전후로 『이태리일통사』(1897)와 『인물단평』(1902)을 통해 마치니를 거듭 조명한 바 있다. 『이태리일통사』에서는 마치니를 “유일하고 위대한 대정신”으로 추앙했고, 『인물단평』에서도 두 개의 절을 할애해 그의 성자다운 인격과 불굴의 인내심을 예찬했다.<sup>47</sup> 그렇다면 유독 1898년의 『카보우르』에서 마치니에 대한 평가가 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시 마쓰무라가 일본이 처한 정치적 국면에서 카보우르라는 인물을 내세워 관철하고자 했던 정견(政見)이 그만큼 절박했던 까닭일 것이다. 마쓰무라는 글의 결론부에서 공연히 박식을 겨루고 죽은 지식을 탐하는 식의 사전(史傳) 류를 비판하면서, 모름지기 전기란 역사적 인물에게 배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sup>48</sup>

카보우르에게 배울 점은 일찍부터 큰 뜻을 세우고, 착실히 준비했다는 식의 일반적 교훈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에 가고, 프로이센에 가고, 프랑스

46 “然れども畢竟する處、一個亡命者の生活のみ、之を以て敢て大影響を伊太利革命の上に及ぼすこと” 松村介石(1898), p. 374.

47 松村介石(1897), 『伊太利一統史』, 東京: 警醒社, p. 33; 松村介石(1902), 『人物短評』(警世叢書 第3卷), 東京: 警醒社, pp. 19-40. 특히 『인물단평』의 「마치니」에서는 마쓰무라가 직접 마치니 전기와 관련 자료들을 읽었음을 밝히며 다른 텍스트에서 찾기 어려운 마치니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급진적인 혁명가로서의 모습은 삭제되어 있다.

48 松村介石(1898), p. 384.

에 아침하며, 러시아에 굴복하고, 중립국에는 동정을 구하는”<sup>49</sup> 카보우르의 유연한 외교술, 즉 주변국들을 최대한 아군으로 만드는 외교적 전략이야말로 중요했다. 이탈리아의 외교적 성공은 청일전쟁에 승리하고도 서툰 외교 탓에 승전의 전리품마저 속절없이 반납(요동 반환)했던 일본의 처지와 대비된다. 마쓰무라는 일본이 조선과 뤬순, 타이완과 요동반도에서 오만하고 강푼한 태도로 현지인의 신뢰를 잃고, 결국 삼국간섭과 열강의 견제를 자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sup>50</sup>

1892년 히라타는 이탈리아의 크림전쟁 참전을 본받아 일본 역시 과감히 전쟁을 결단함으로써 서양 열강과 나란히 서야 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1898년의 마쓰무라는 힘이 아닌 ‘자유’와 ‘인정’(人情)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나아갈 길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대외 팽창 의지를 철회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주변 아시아 지역을 향한 일본의 ‘팽창’은 동양 ‘일통’(一統)이라는 표치(標幟) 아래 ‘해방’의 수사로 탈바꿈한다. 마쓰무라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카보우르』의 마지막 부분을 다소 길게 인용해 본다.

카보우르의 정신은 이탈리아 동포를 도탄에서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한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려는 데에 있었으며, 그가 주의로 삼는 바는 인정(人情)의 편이 되는 데에 있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칠 때 선언하여 말하기를, 조선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 독립의 백성이 되게 함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고, 그 후 착착 실행하는 바를 보면, 은연중 조선을 삼키고자 하는 형세를 보였다. (...)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이탈리아 통일의 관념에서 나아가 동양의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 마치니가 되고 가리발디가 되고 카보우르가 되어 청국으로

49 松村介石(1898), p. 86.

50 松村介石(1897), 『伊太利一統史』, pp. 73-74.

가서 그들의 독립과 자유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를 천하의 인류에게 호소하며 말하라. “동양은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구하여 19세기의 문명 은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에 거스르는 자는 도의의 적이며, 자유의 적이며, 문명의 적이다. 프리시아 황제라 하더라도 이를 용서할 수 없으며, 하물며 전제국의 러시아 황제야 말해 무엇하랴.”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 내부를 반성하여 야만적 행위를 삼가고, 밖으로는 대의를 보이며 청국과 조선과 시암 등을 계몽하라. (...) 첫 번째 유신은 일본을 통일함에 있었고, 두 번째 유신은 마땅히 동양을 통일함에 있을 것이다.<sup>51</sup>

마쓰무라에 따르면, 사르데냐 왕국의 나폴리·시칠리아 병합은 봉건적 전제와 압제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킨 ‘자유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주변 강국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감히 반대하여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반면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패착은 조선과 타이완, 뤼순에서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냈다는 데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서구 열강에게 간섭할 빌미를 주었고,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의 팽창이 ‘자유와 해방의 실천’으로 수행된다면 서양 열강은 간섭할 명분을 잃을 것이요, 해당 지역의 인민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귀속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마쓰무라는 독자들을 향해 촉구한다. 저마다 조선과 청국으로

51 “カヴールの精神は伊太利の同胞を塗炭に救ひ、之をして自由の一國民たらしめんとするにてありき、而て其主義とする處は人情の味方たるにてありき、我國の清國を撃つや、宣言して曰く、朝鮮を救ひ、彼をして自由獨立の民たるしむるに在りと、然るに言全く行と違ひ、其後着着施設する處を見れば、陰然朝鮮を呑まんと欲するの形勢を示し (...) 而して最後に學ぶべきものは、即ち伊太利一統の觀念より、施て東洋の一統に及ぶ是れなり (...) マヂニーともなり、ガリバルヂーともなり、若くは又カヴールともなり、以て清國に赴て彼等の獨立自由を扶けざるべからず (...) 之を天下の人類に訴へて云へ、「東洋實に憐れむべし、故に我れ之を救ふて以て十九世紀の文澤に浴さしむべし、之に逆ふものは、道の敵なり、自由の敵なり、文明の敵なり、普帝と雖ども亦之を恕すべからず、況んや擅制國の魯帝をや」かく叫んで進み、内には自ら省みて蠻行を謹しみ、而して外は大義を示して清國并に朝鮮、暹羅等を開導せよ (...) 夫れ第一の維新は日本を一統するに在り、而て第二の維新は當に東洋を一統するに在るべし.” 松村介石(1898), pp. 486-488.

뻔어가 마치니가 되고, 가리발디가 되고, 카보우르가 되라고. 단, 침략과 억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와 인정을 위해 진심을 다해 헌신하라고.

마쓰무라의 주장은 그의 독창적인 견해만은 아니었다. 『카보우르』가 연재되었던 1898년 『태양』 1월호에는 리홍장(李鴻章)의 전면 사진과 함께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의 논설 「동인종동맹」(同人種同盟)<sup>52</sup>이 게재되었다. 그 취지는 정확히 마쓰무라의 논리와 공명한다. 최근 일본이 전쟁 승리에 도취되어 ‘지나인’(支那人)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국익을 해칠 뿐이다. 인종 경쟁의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황인종 동맹’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우정으로써 중국의 진보와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논지다. 그의 주장은 같은 해 11월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의 결성으로 구현되었다. 마침 일본의 동양연대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정세도 조성되었다. 일본의 팽창이 삼국간섭으로 주춤한 사이 서양 열강들은 청국 분할(瓜分)에 열을 올렸고, 무술정변(1898)으로 밀려난 청의 개혁 세력이 대거 일본으로 망명했다.<sup>53</sup> 러시아는 일본이 반환한 요동에서 뤼순과 다롄을 점령(1898)했고, 조선에서도 일본이 을미사변(1895)으로 신망을 잃은 틈을 타 세력을 떨쳤다(아관파천, 1896~1897). 고노에 등의 동양연대론은 수세에 몰린 일본이 아시아에서 세력을 만회하고 청일전쟁 이후의 외교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팽창’을 도모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의 산물이었다. 과연 ‘자유’와 ‘인정’을 내세운 동양연대론의 호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여, 1898~1900년 사이에 중국과 조선에서도 폭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해방의 수사와 팽창의 욕망, 자유에 대한 갈망과 ‘서양’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뒤얽혀 있는 이 시기 동양연대론을 한 마

52 近衛篤磨(1898), 「同人種同盟, 附支那問題研究の必要」, 『太陽』 4(1).

53 마쓰무라는 『카보우르』에서 종존례(宗存禮), 성학당(聖學黨), 가로회(哥老會) 같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연대 세력으로 거명하기도 했다. 종존례의 宗은 宋의 오식으로 변법파의 일원인 송수(宋恕)를, 성학당은 강유웨이(康有爲) 일파를 가리킨다. 가로회는 반청·복명(復明)을 목표로 삼은 청말의 비밀 결사로 1911년 신해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직이다.

디로 통틀어 허위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보우르』의 한 대목은 일본 동양연대론자의 ‘명분’(建前)과 ‘속내’(本音) 사이의 괴리를 언뜻 내비치고 있어 흥미롭다.

마치니는 공화정을 주장하며, 이탈리아가 통일되면 국민 다수의 뜻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두어 주권자로 삼아야 한다고 논했다. 이론상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카보우르는 이를 비웃었다. (...) 나는 진정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하지만, ‘연합’을 말하지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일이라 하면 그것을 이룰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르데냐 왕국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공언하는 것은, 곧 사르데냐 왕국이 이탈리아의 여러 주를 병탄(併呑)하려 한다는 뜻에 불과하니, 나는 이를 차마 입에 담지 않는다(云ふを耻づ). 아니, 지혜로써 ‘연합’을 말하더라도 ‘통일’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곧 카보우르의 속마음(胸臆)이었다.<sup>54</sup>

인용문은 마치니의 ‘통일’(Unity)론과 카보우르의 ‘연합’(Confederation)론을 대비하여 해설하는 대목이다. 해당 구절은 원래 *LifeCC*에서 가져온 내용이지만, 마쓰무라의 ‘동양 일통론’과 조응하여 미묘하게 변형되었다. 원문

54 “マヂニーは共和政を主張す、之を以て伊太利一統の暁には、國民多數の意見を代表する大統領を置いて此れが主權たらしむべきは、理の正に然るべき處たりと論ず、然れどもカプールは之を笑へり (...) 余は實に伊太利を一統せんと欲するもの、然れども連合を云ふて一統を云はず、蓋し一統と云ふば、之を一統するものなかるべからず、之を爲すそれサルでニヤ王國か、是れ余が望む處なり、然れども今日にありて之を云ふ、即ちサルデニヤ王國を以て伊太利諸州を併呑せんと欲するの意に過ぎず、吾人は之を云ふを耻づ、否な、智以て連合を云うとも、一統を云ふべからずとは、是れ即ちカプールか胸臆なり。” 松村介石(1898), p. 376. ‘耻づ’는 문맥상 도덕적인 의미에서 ‘부끄러워하다’가 아니라 정략적인 차원에서 ‘거리긴다’라는 의미이기에 뜻을 살려 의역하였다. 『카보우르』에서 마쓰무라 자신은 동양 ‘일통’이라는 단어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자유’와 ‘인정’에 바탕을 둔 ‘일통’을 강조하지만 이탈리아 역사와 겹쳐놓고 독해하면 일본의 동양 ‘병탄’을 뜻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 취지는 마치니가 처음부터 이탈리아의 ‘완전한 통일’을 주장한 반면, 카보우르는 통일이 아닌 각 지역의 ‘연합’을 정치적 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마쓰무라는 이를 번역하면서 카보우르가 통일이 아닌 연합만을 내세운 것이 현명한 처사였다고 평가한다. 통일이란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병탄’ 이어야 하는데,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면 다른 지역들의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속으로는 사르데냐 중심의 병탄과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겉으로는 ‘연합’만을 말했던 카보우르의 전략이야말로 곧 작가 마쓰무라의 본심이 아니었을까? 평등한 주권자들의 결합이 아닌 일본 중심의 ‘병탄’으로서의 동양 일통을 추구하지만, 주변국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단은 동양의 ‘연대’만을 말하겠다는 속내 말이다. 마쓰무라의 진의가 실제로 어떠한지 간에, 이후 10여 년간 전개된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탈리아 통일 서사가 어느새 아시아 침략의 서사로 변질되었음을 냉혹하게 입증한다.

#### 4. 낭만적 영웅과 재자가인의 서사: 기시자키 쇼의 『가리발디』

『가리발디』는 1900년 박문관이 간행한 <세계역사담> 시리즈의 제11편으로 출간되었다.<sup>55</sup> 광고에 따르면 이 총서는 매월 1권씩 총 24권 발간을 목표로 했다. 국판(菊判) 양장의 고급 장정에 “당대의 저명 문학가”가 집필하고 “유명 화양(和洋) 화백”이 삽화를 맡았다. 구성 또한 석가(1), 공자(2), 예수(3) 같은 성인에서 비스마르크(4), 한니발(5), 넬슨(8), 콜럼버스(10)까지 동서고금의 영웅을 망라했다. “소년들이 뜻을 세우는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서문이 시사하듯, 이 시리즈는 쉽고 대중적인 청소년 위인 전집으로

55 岸崎昌(1900), 『ガリバルディー』(世界歴史譚 第11編), 東京: 博文館(기시자키본 혹은 『가리발디』로 지칭).

기획되었다. 이런 기획에 충실하게 『가리발디』는 130여 쪽의 부담 없는 분량에 풍부한 전면 삽화를 곁들이고 있으며, 복잡한 역사 맥락이나 시사(時事) 논평을 걷어낸 자리에 에피소드 중심의 흥미로운 서사를 채워 넣었다.

저자인 기시자키 쇼는 법학자로서 『세관 및 창고론』(税関及倉庫論), 『국법학』(国法学) 등 법률 서적을 간행한 것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정치 행적을 찾을 수 없다. 히라타의 『이태리건국삼걸』이 ‘번역’의 외피를 쓰고 민유사의 정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마쓰무라의 『카보우르』가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사를 일본 주도의 동양 일통론에 투사한 반면, 기시자키의 『가리발디』는 여러 책의 정보를 퍼즐처럼 조합했을 뿐 저자의 정치적 견해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샌키그래프 3열 하단의 기시자키 막대가 보여주듯, 그는 기본적으로 가리발디 전기 2종인 *The Life of Giuseppe Garibaldi*(이하 *LifeGG*)와 *Life of Giuseppe Garibaldi: Italian Hero and Patriot*(이하 *LifeGGP*)<sup>56</sup>를 조합하고, 총 3권으로 이뤄진 *Autobiography of Giuseppe Garibaldi*(이하 *Auto1, 2, 3*)<sup>57</sup>로 부족한 정보를 보완했다. 특이한 점은 히라타의 저본인 *Makers*뿐만 아니라 히라타가 *Makers*를 번역하면서 첨가한 독자 서술 부분(빨간색 노트)까지 기시자키본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다.<sup>58</sup> 반면 기시자키 본인의 독자 서술(녹색)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은 그가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기존 정보의 재배열에 머물렀음을 방증한다.

56 James Theodore Bent(1881), *The Life of General Garibaldi (LifeGG)*,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Howard Blackett (1882), *Life of Giuseppe Garibaldi: Italian Hero and Patriot (LifeGGP)*, London: Walter Scott.

57 Giuseppe Garibaldi (1889), *Autobiography of Giuseppe Garibaldi*, Translated by A. Werner With a supplement by Jessie White Mario, 3 vols. (*Auto1, Auto2, Auto3*), London: Walter Smith & Innes.

58 실제로는 기시자키가 *Makers* 원서가 아닌 히라타의 『이태리건국삼걸』에서 메리어드 원저를 번역한 부분과 히라타의 독자 서술 부분을 별 다른 구별 없이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보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샌키그래프 1-2열의 *Makers*에서 기시자키본에 유입된 하늘색 노트와 3열의 히라타 독자서술 부분에서 유입된 빨간색 노트를 구분해 두었다.

그러나 기시자키가 참조하고 활용한 지식의 원천을 추적해 보면, 정보의 취사선택 자체에 이미 특정한 정치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프레임은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가 쓴 서문에서 잘 드러난다.

이탈리아 건국 역사에 있어 두 영웅은 말할 것도 없이 카보우르와 가리발디이다. 그 지략, 도량, 식견, 기량에 있어서 가리발디는 끝내 카보우르에 미치지 못하나, 오직 호방불기(豪放不羈)하고 온몸이 담력인 의기(意氣)에 있어서는 카보우르가 끝내 가리발디에 미치지 못한다. 가리발디가 가리발디다운 까닭은 실로 여기에 있다. 그는 담기(膽氣)의 사람이며, 정열의 사람이다. 의기가 서로 투합하여 한 번 감격하면 천하의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으니, 그는 이와 같이 하여 자유를 위해 싸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웠다. 그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南洲)로구나.<sup>59</sup>

다카야마는 1897년 박문관 입사 후 잡지 『태양』(太陽)의 편집주간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총서의 제 10권 『콜럼버스』(閻龍), 제12권 『피터대제』(彼得大帝), 제13권 『워싱턴』(華聖頓)에는 저자가 직접 서문을 쓴 반면, 유독 『가리발디』에는 초규가 직접 서문을 붙였다. 앞 장에서 다룬 『카보우르』 역시 『태양』의 〈세계 10대 위인〉 기획 첫 순서로 연재되었다는 점은 당시 다카야마와 박문관 편집진이 이탈리아 통일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다카야마의 서문은 '3걸' 중 마치니를 배제하

59 “以太利建國の歴史に於ける二個の英雄は、言ふまでも無くカブールとガリバルデーと也。其の智略度量識見技柄に於てガリバルデー遂にカブールに及ばず、唯豪放不羈滿身渾膽の意氣に於てはカブール遂にガリバルデーに及ばず。ガリバルデーのガリバルデーたる所實に茲に存す、彼は膽氣の人也、情熱の人也、意氣相投じて一度び感激すれば天下何物も彼を沮む能はず、彼は是の如くにして自由の爲に戦へり、濟民の爲に乎へり(…)彼れに近き人を求むれば、夫れ我西郷南洲乎。”高山林次郎, 「序」, 岸崎昌(1900), 『ガリバルデー』, 博文館, pp. 序1-2.

고 가리발디와 카보우르라는 ‘두 영웅’만을 전면에 내세운다. 또한 가리발디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략, 도량, 식견, 기량” 면에서는 가리발디가 카보우르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언함으로써, 히라타나 마쓰무라와 마찬가지로 카보우르 중심 관점을 보여준다. 대신 그는 가리발디의 고유한 덕목으로 호방불기(豪放不羈), 의기, 담기(膽氣), 자유를 위한 투쟁, 백성 구제, 지성(至誠) 등을 열거하며, 전반적으로 의협심 넘치는 캐남아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도덕이나 상식, 통상적 규범보다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공을 세우기에 적합한 인물,<sup>60</sup> 다카야마는 이러한 가리발디의 특징을 사이고 다카모리에 견주었다. 다카야마가 「서」(序)에서 제시한 가리발디 표상은, 『가리발디』 전기의 서술 방향, 나아가 당대 일본 독자에게 가리발디가 각인되는 방식을 결정지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리발디 표상의 기원은 무엇보다 기시자키가 주로 참조한 두 편의 영국산 가리발디 전기(*LifeGG*, *LifeGGP*)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텍스트들은 오코너<sup>61</sup>가 상세히 분석한 바 있는 빅토리아 영국의 ‘이탈리아 로망스’의 전형적인 산물이었다. 영국의 ‘이탈리아 로망스’는 가리발디에 대한 광적 숭배(*Garibaldi cult*)에서 정점을 이뤘다. 오코너가 신랄하게 지적했듯, “영국의 열성 팬들은 가리발디가 실제로 무엇을 믿거나 말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알지 못한 채”, 그를 영국적 이상을 구현한 ‘낭만적 영웅’으로 주조해 냈다. 블래킷의 *LifeGGP*는 가리발디야말로 이탈리아 통일 4걸(3걸+에마누엘레) 중 으뜸이라고 예찬한다. 그러나 ‘황금의 심장’(heart of gold)이라고 불린 가리발디의 ‘용맹과 대담함’, ‘순수함과 헌신’, ‘자유에 대한 열정’, ‘고귀함’<sup>62</sup>

60 “비상(非常)한 시기에는 비상한 인물이 있고, 그리하여 비로소 비상한 공을 이룬다. 그는 통상적인 규범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존재다. 저 위대한 덕의(德義)는 저절로 그곳에 존재하니, 우리들은 가리발디에게서 그 한 가지 예를 본다.” 岸崎昌(1900), p. 「序」 1.

61 본고와 관련해서는 특히 마치니에 대한 3장, 가리발디의 영국 방문과 환영에 대한 6장의 분석이 큰 시사점을 준다. O'Connor (1998), pp. 149-186.

62 “Heart of Gold” he was called from his purity of purpose, his high-souled bravery and daring, and for the utter unselfish way he gave himself up to be spent for the good of

을 칭송하는 텍스트의 관점은 정확히 오코너가 분석한 ‘낭만적 영웅상’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다.

벤트의 *LifeGG*는 당대의 가리발디 열풍에 편승하면서도, 영국의 ‘이탈리아 로망스’가 가리발디의 어떤 점을 수용하거나 배제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벤트에 따르면 가리발디는 ‘단순하고 솔직’하며 ‘자기 부정의 순수함’을 지닌 영웅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다루기 쉬운’ 인물이었다. 그 결과 한때 마치니에게 휘둘리기도 했으나, 남부 이탈리아 원정 때는 카보우르의 현명한 통제 덕분에 “국왕에게 두 왕관을 바치는 영광”<sup>63</sup>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벤트의 서술은 용맹하지만 순수한/무지한 어린아이 같은 가리발디가 왕과 카보우르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칭찬하고, 그 선을 넘으면 비판하는 이분법을 따른다.

*LifeGG*와 *LifeGGP*에서 대부분의 에피소드를 차용한 『가리발디』 역시 전체적으로 낭만적 영웅상으로 채워져 있다. 주의할 점은 기시자키의 가리발디 재현이 정보의 부재가 아닌, 편향적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시자키의 편집자적 역할 자체에 내재된 정치성을 독해해낼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 기시자키는 가리발디 자서전 3종(*Auto1*, 2, 3)도 참조했으나 이로부터 극소량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활용했으며, 그나마 매우 단편적이고 사적인 정보들에 불과했다. 예컨대, 가리발디가 어린 시절 물에 빠진 세탁부를 구했다거나 다리가 잘린 도마뱀을 보고 슬퍼했다는 일화는, 각기 *Auto1*과 *Auto3*에서 유입된 정보다. 그렇다면 기시자키가 방대한 자서전 계열

---

his country” Blackett (1882), p. iii.

63 “When influenced for good, no character was more glorious than Garibaldi’s. For example, throughout the Sicilian campaign his bark was guided over those troubled waters with Cavour at the helm. Cavour had to combat at that time the ‘Mazzinian idea’ and for a while the two great political stars of Italian freedom— the Constitutionalist and the Republican— fought with occult weapons for the control over Garibaldi, who re- presented the power. Eventually Cavour gained the day, and it was the proudest moment of Garibaldi’s life when he presented his constitutional sovereign with two crowns.” Bent (1881), p. 4.

저작들을 참조하면서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 취사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Auto 1~3*은 제시 화이트 마리오(Jessie White Mario)의 편집을 거쳤으며, 1, 2권은 가리발디 자서전, 3권은 그녀가 직접 집필한 가리발디 전기와 관련 기록으로 이뤄져 있다. 화이트 마리오의 가리발디, 마치니와 공화주의 및 박애적 이상을 공유한 동지였다. 그녀는 가리발디의 남부 이탈리아 원정을 비롯한 모든 투쟁 현장에서 간호사, 저널리스트, 자금 모금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리발디 사후에도 이탈리아에 남아 나폴리의 빈민 환경 개선 등 사회개혁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민족 경계를 횡단하는(transnational) 해방적 정치의 행위자이자 급진적 사상가로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하다.<sup>64</sup> 이런 점에서 그녀가 직접 편집하고 저술한 *Auto1~3*은 앞선 두 전기와 확연히 다른 관점으로 상이한 가리발디 형상을 제시한다. 그녀는 *Auto3*의 「독자에게」에서 기존 가리발디 전기들이 대개 불완전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The Life of G. Garibaldi*는 (...) 사실보다 오류가 많고”, “애국자에 대해서도, 인간 가리발디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sup>65</sup>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LifeGG*와 *LifeGGP*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Auto1~3*은 내용의 구성부터 기존 전기 2종과 차별화된다. *Auto1*, 2의 가리발디 자서전은 5개의 시기로 분절되는데, *LifeGG*와 *LifeGGP*는 이 중에서 주로 2기인 로마 공화국과 3기인 남부 이탈리아 원정만을 상세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거나 간략한 에피소드로 처리했다. 그들이 축소·생략한 나머지만 가리발디가 남미 신생 공화국의 독립 전쟁을 원조하고(1기), 로마 문제를 둘러싸고 사르데냐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4기), 보불전쟁에서

64 Diana Moore (2018), *Transnational Nationalists: Cosmopolitan Women, Philanthropy, and Italian State-Building, 1850-1890*, PhD diss., CUNY Graduate Center; Lorna Gibb (2021), “Hurricane Jessie,” *Women’s History Review* 30, no.1, pp. 163-170.

65 Mario (1889), *Auto 3*, p. vi.

프랑스 제3공화국을 도와 보쥬(Vosges) 전역에 참가한(5기) 시기를 말한다. 대개 가리발디가 국제주의적 연대 활동에 매진하거나 공화주의를 표방하며 국왕과 갈등하던 시기들로서, 가리발디 자서전에서는 구성상 5분의 3, 분량상으로는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Auto 1~3*과 *LifeGG*, *LifeGGP*는 역사 해석에서도 확연한 간극을 드러낸다. 후자의 두 전기와 앞서 분석한 *Makers*, 그리고 이들의 관점을 계승한 기시자키의 저술은 공통적으로 카보우르 중심성, 입헌 왕정의 필연성, 마치니의 급진적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공유한다. 반면 *Auto1*의 앞에 붙인 긴 서문에서 마리오는 하나의 이탈리아라는 통일 사상의 사도(apostle)는 마치니였고, 그 챔피언은 가리발디였음을 천명한다. 사르데냐 왕가는 이들이 촉발한 통일 운동의 거대한 조류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대열에 합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sup>66</sup>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 방식과 의미화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예컨대 가리발디의 남부 이탈리아 원정 및 권력 이양과 관련하여 *LifeGG*나 *LifeGGP*는 다음과 같은 서술 흐름을 따른다. ① 가리발디가 출항 전 에마누엘레 왕에게 밀서를 보내, 자신의 싸움이 “폐하의 왕관”에 “광채 나는 보옥(寶玉)”을 더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② 카보우르는 가리발디의 출격을 묵인했으며, 페르사노 제독에게 나폴리 함대와 가리발디 사이에 머물라고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리발디를 지원했다. ③ 가리발디는 통일을 위해 왕에게 남부 이탈리아의 통치권을 자발적으로 헌납하고, 왕과 나란히 나폴리에 입성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④ 청빈한 가리발디는 포상을 거부하고 카프레라로 돌아갔으나, 왕은 성대한 포상과 특별 대우로 그에게 예우를 다했다.

반면 *Auto3*의 서술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준다. ① 가리발디가 왕에게 보낸 편지의 취지는 ‘시칠리아 인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출병 이

— [www.kci.go.kr](http://www.kci.go.kr)

66 Garibaldi (1889), *Auto 1*, pp. liii~liv.

유와 ‘고향 땅(니스)을 다시는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 촉구였다. ② 카보우르는 가리발디의 출병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며, 페르사노에게 (나폴리 함대와 가리발디 중간에 섬으로써) 가리발디의 나폴리 상륙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③ 에마누엘레 왕이 “혁명 세력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무례한 선포(discourteous proclamation)’<sup>67</sup>를 한 후 군대를 이끌고 남진하는 상황에서, 가리발디는 동족상잔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권력 이양을 선택했다. ④ 권력 이양 후 가리발디는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홀대를 당했으며, 의용군 해체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상이한 두 개의 서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시자키는 의도적으로 전자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심지어 그는 *LifeGGP*의 ④ 관련 대목을 참조하면서, “자애로운 왕의 은총”을 한층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미화한다.

‘가리발디’, 순박하고 욕심 없는 마음을 지닌 붉은 셔츠의 장군은 모든 영예와 포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표연히 고향 섬으로 귀향했다. 인애로운 왕의 은총은 바다를 건너 이곳에까지 미쳤다. 이제 카프레라 섬은 옛날 돌밭 갈던 모습에서 일변하여, 화원에는 온갖 꽃꽃이 피고 숲에는 못 새가 노래하는 좋은 낙원이 되었다. 이전에 무릎이나 겨우 들여놓을 정도에 불과했던 초가집은 자취를 감추고, 큰 저택과 높은 누각(大廈高樓)이 구름 위로 솟아 있다. 방에 들어서면 ‘빅토르 에마누엘레’의 초상화가 정면에서 싱긋 웃으며 그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곡물과 목재를 멀리 ‘마달레나’로 보내 팔아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달팽이 빨 위의 싸움처럼 시끄럽고 어지러운 정쟁을 귀에 담은 일 없이, 한가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sup>68</sup>

67 Mario (1889), *Auto3*, p. 298.

68 “「ガリバルデー」純樸淡懷なる赤衣將軍は凡ての榮譽凡ての褒賞を捨つる事弊履の如く飄然として故島に歸航すれば、仁愛なる王の恩寵は海を隔て、此地にまで達せり、今や「カブ

마치 동화의 해피엔딩을 연상시키는 이 대목이야말로 기시자키가 의도한 가리발디 서사의 진정한 종결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가리발디의 저항은, 그가 구축한 완벽한 서사의 결말을 훼손하는 '군더더기'에 불과했다. 『가리발디』 후반부가 서사의 맥락을 잃고 지엽적인 에피소드에 치우치거나, 심지어 히라타 책의 결론을 그대로 베끼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 ① 토리노 국회에서 가리발디와 카보우르의 갈등을 왕이 중재함. 이어지는 마치니와의 갈등(77-84쪽)
- ② 아스프로몬테 전투에서 왕군(王軍)과 교전 후 부상(84-90쪽)
- ③ 가리발디의 영국 방문과 대중적 인기(90-93쪽)
- ④ 보오전쟁의 어부지리로 베네치아 통합. 가리발디가 로마로 진격하다 프랑스군에 궤멸당함(93-109쪽)
- ⑤ 보불전쟁의 와중에 에마누엘레 왕이 로마 통합(109-113쪽)(*Makers* 및 『이태리건국삼걸』의 결말부 반복)
- ⑥ 이탈리아 통일사와 3걸에 대한 종합적 평가(113-121쪽)(『이태리건국삼걸』의 3걸 평가 반복)

---

レラ島は昔日礪礪の狀を一變して、花園には千种花咲き、森には百鳥歌ふ好樂園となり、曩に膝を容るゝに過ぎざりし彼の茅屋は影を留めずして大厦高樓の雲に聳ゆるあり、室に入れば「ヴィクトル、エムマニユエル」の畫像は正面に立て嫣然として彼を迎接するに似たり、彼は今や穀物材木を遠く「マツダレナ」に送て之を賣却するの勞を採るを要せず、紛々擾々たる蝸牛角上の政争を耳にする事なく、閑にして樂多き日を送るのへとなれり” 岸崎昌(1900), pp. 76-77; “WHEN the General arrived at Caprera, he was astonished to find his island quite changed. He had left it a stony desert, except around his dwelling; but new cultivated fields and plantations, with groves and avenues, met his gaze. His cottage, too, had given place to a commodious villa and farm buildings ; no doubt he had known that a friend intended him a surprise. The full explanation faced him in the hall, for there hung the portrait of Victor Emmanuel, who had turned his absence to account in a practical manner.” Blackett (1882), p. 274.

## ⑦ 가리발디 전 생애에 걸친 짙막한 에피소드들(121-131쪽)

후반부 각 부분의 서술 방식은 저자의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낸다. ① 가리발디와 카보우르의 갈등은 왕의 적극적 중재로 둘이 함께 ‘국왕 만세’를 외치며 화해롭게 마무리된다. 그러나 곧이어 마치니와 가리발디의 갈등을 배치함으로써, ‘왕-카보우르-가리발디’의 연대와 ‘마치니’의 고립이라는 대립 구도가 부각된다. ② 아스프로몬테 교전은 왕이 열강들의 압력에 못이겨 “눈물을 머금고 마속(馬謏)을 베는”<sup>69</sup> 심정으로 그를 추포하려다가 벌어진 비극으로 서술된다. ③ 영국 방문 당시 가리발디가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는 에피소드는, 영국 전기들이 가리발디를 ‘대중적 아이콘’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 ④, ⑤ 이탈리아가 베네치아와 로마를 통합하여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은 보오전쟁과 보불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의 부산물처럼 그려지며, 가리발디의 거둬진 봉기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평가 절하된다.<sup>70</sup>

기시자키가 가리발디 말년의 역사와 서사를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음은 *Makers*와 그 번역본인 『이태리건국삼걸』의 결말부를 통째로 베긴 데서도 드러난다. ⑤ 에마누엘레 왕과 교황이 주고받은 편지와 로마 통일 과정은 *Makers*의 결말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또한 ⑥ 3걸에 대한 종합 평가 역시 『이태리건국삼걸』에 실린 도쿠토미의 서문, 결

69 岸崎昌(1900), p. 87.

70 이 점을 가장 신랄하게 표현한 것은 벤트의 전기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가리발디의 ‘별의 순간’은 남부 시칠리아 원정 때였으며, 아스프로몬테 전투 이래의 모든 행동은 돈키호테의 소동에 다름아니다. “It was no longer a case in which Garibaldi could decide. His method of reaching Rome was proved to be a failure: his volunteers were disbanded, and if he could have presented himself on the frontier, once more, scarce a man would have been found foolish enough to follow him. So after a little rest at Varignano, which was exceedingly good for his health—overwrought and over-excited as he had been, for a man of his age—the King gave him permission to return to Caprera. As far as Italy and Rome were concerned, his star was now for ever set.” Bent (1881), p. 277.

말부 히라타의 독자 서술, 그리고 2절에서 분석한 시몬즈의 브리태니커 사전 일부를 베낀 것이다. 샌키그래프 3열의 'Hirata\_original(빨간색)' 노트에서 기시자키 막대로 이어지는 빨간색 링크가 이러한 흐름을 시각화한다. 결국 기시자키는 3결 평가에서 8년 전 민유사의 관점을 그대로 답습했고, 그 결과 가리발디 전기는 "진정한 이탈리아 건설자"는 카보우르였다는 기묘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이탈리아 역사를 통해 일본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던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존 평가의 기계적 답습과 가리발디의 '소설적 낭만화'만 남았다. 기시자키는 '낭만'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의 소설적 '조작'조차 서슴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창조적'이라 할 만한 대목은 가리발디와 아니타의 만남 장면이다.

하루는 식량이 바닥나 이를 구하고자 두세 명의 부하와 함께 상륙하여 '우루과이'의 광원, 저 망망한 수십 마일의 들판을 가로질렀다. 풀은 푸르고 꽃은 희며 기러기가 하늘 끝을 건너는 듯 야생마 떼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마치 스스로 그를 인도하는 듯했다. 이르러 보니 한 농가가 있었으나 집과 그 사이에 강이 흘러 배 없이는 건널 수 없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 사람을 찾으니, 꽃다운 나이 이팔청춘임이 분명한 아름다운 여인이 배의 노를 저어 다가왔다. (...) 여인이 음식을 가져와 그들에게 권하고 거문고를 타니 들보의 먼지가 춤을 추듯 아름다웠고, 노래로 '호머'의 시구를 읊으니 눈앞에 슬픈 바람이 이는 듯했다. 본래 풍류를 모르던 그였으나 순식간에 그 마음이 하늘 위로 날아올라 (...) 어찌 알았으랴. 월하노인이 기이한 장난을 쳐서 악기를 타던 가인 '아니타'가 거지 장군 '가리발디'와 부부가 되어 가장 화목한 날들을 보내게 될 줄이야. '아니타'는 본래 '플로렌스(피렌체)' 사람으로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었다.<sup>71</sup>

71 “一日糧良盡きて之を得んと欲し、二三の從卒と共に上陸し「ウルガイ」廣原を横ぎる茫々

가리발디의 첫 번째 부인 아니타는 그가 남미 망명 시절 인연을 맺은 포르투갈계 브라질 여성으로 가리발디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여걸’(女傑)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로마 공화국 몰락 후 만삭의 몸으로 고된 패주를 거듭하다 길 위에서 아이를 사산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아니타와의 만남과 사별은 가리발디 일생에서도 ‘낭만’과 ‘비극’이 교차하는 극적 순간이기에, 여러 전기물에서 빠짐없이 다뤄지곤 한다. 그런데 기시자키의 위대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순수 창작이다. 굳이 출처를 따지자면, 가리발디가 팜파스의 한 농가에서 우연히 단테와 페트라르카를 아는 교양 있는 부인을 만나 식량을 조달받았던 에피소드가 원형일 것이다.<sup>72</sup> 기시자키는 이 일화에 아니타와의 만남 장면<sup>73</sup>을 교묘히 뒤섞고, 도카이 산시(東海散士)의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를 모방한 소설적 묘사를 곁들여 전형적인 ‘재자가인’(才子佳人) 서사로 극화해 냈다. 기시자키는 자신의 이 창작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타의 죽음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이 만남 장면을 짧게 언급한 뒤, 책 말미의 에피소드 모음(㉔)에서 다시 한번 길게 반복 서술한다. 서양의 낭만적 가리발디 서사에서 흔히 강인한 아마조네스 풍으로 묘사되던 아니타를, 거문고를 켜고 시를 읊조리는 동양적 ‘가인’(佳人)으로 변모시킨 것이 흥미롭다.

남미 태생인 아니타가 본래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었다고 각색한 대

---

たる數十哩の原野、草緑に花白く、鴻雁の天涯を渡るか如き野馬の群は且つ現はれ且つ隠れ、自ら彼を導くものゝ如くにして、到れば一農家あり、家を隔て、一流船なくして渡る可らず、彼則ち聲を放つて人を求む、佳人芳紀正に二八なるべし、船に棹して來る(…)佳人食を取つて彼等に進め、琴を取つて之を彈ずれば梁塵踊り、歌みに「ホーマー」の章を以てすれば自ら悲風生ず、彼もと風流なし、忽ちにして其心天外に飛ぶ、(…)底事ぞ、月下氷翁奇を弄し、彈琴の佳人「アニタ」は乞食將軍「ガリバルデー」と伉儷尤も睦まじき日あらんとは、「アニタ」もと「フロレンス」の人、幼にして父と共に此處に移りしなり。” 岸崎昌(1900), pp. 125-127.

72 가리발디 자서전에서 교양 있는 부인과의 만남은 Garibaldi, *Auto1*, pp. 33-35; 아니타와의 만남은 *Auto1*, p. 79에 나온다.

73 Blackett (1882), p. 32; pp. 41-42.

목은 더욱 이목을 끈다. 이는 『가리발디』의 서문을 쓴 다카야마가 주창한 '일본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야마는 일본주의가 국수보존주의와 달리 세계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투란 인종'(동양)이 뭉쳐 '아리안 인종'(서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대목은 결국 '일본'적 '국체'(nationality)의 상상에 '만세일계'(萬世一係), '억조일성'(億兆一姓)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준다.<sup>74</sup> 이렇게 '낭만적 소설'(로망스)로 변형된 기시자키의 『가리발디』에서, 언제나 '초민족적 민족주의자'(transnational nationalist)였던 가리발디의 진면목도, 그와 함께 투쟁했던 수많은 코스모폴리탄 여성들(cosmopolitan women)<sup>75</sup>의 존재도 말끔히 지워져 버리고 말았다.

## 5. 결론

본고는 1892~1900년 사이 메이지 일본에서 '이태리 건국 삼결'(마치니·가리발디·카보우르) 서사가 번역·편집·재서사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그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였다. 량치차오가 『의대리건국삼결전』의 저본으로 삼았던 일본어 3종(『이태리건국삼결』, 『카밀로 카보우르』, 『가리발디』)은 영어권의 방대한 자료를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가공하여, 급진적 공화주의의 위협성을 제거하고 천황제 국민국가와 대외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탈리아 로망스'로 재구축했다. 영문 14종의 소스가 일어 3종으로 '번역'된 과정은 단순한 언어 치환이 아니라 지식의 참조, 선별, 가공을 통해 특정한

74 高山樗牛(1899), 「日本主義」, 『時代管見』, 博文館, p. 52. 같은 책의 「國粹保存主義と日本主義」도 참조.

75 앞서 인용한 다이아나 무어의 논문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 Diana Moore, "Transnational Nationalists: Cosmopolitan Women, Philanthropy, and Italian State-Building, 1850-1890".

정치 담론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지적 편집’의 실천이었다.

2장에서는 『이태리건국삼걸』이 엄밀한 번역이 아니라 외부 자료의 삽입과 첨삭을 동반한 편집 텍스트로서, 영국의 휘그 사관을 계승하는 동시에 전쟁을 촉구하는 ‘팽창적 국민’ 서사로 변주되었음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카밀로 카보우르』가 봉건과 전제의 압박에 신음하던 남부 이탈리아를 동양의 타자들에, 사르데냐 왕국을 일본에 겹쳐놓음으로써, 이탈리아 통일사를 해방자 일본이 주도하는 ‘동양 일통’의 담론으로 변형시켰음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영국의 대중적 전기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리발디의 국제주의적·공화주의적 면모를 축소하고 그를 ‘낭만적 소설(로망스)’의 주인공으로 가공하는 양상을 규명하였다.

일어 3종의 영-일 번역 양상과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본 논문은, 량치차오의 『의대리건국삼걸전』이 일어 3종을 어떻게 재전유하고 있는지 분석한 논문<sup>76</sup>과 짝을 이룬다. 일본의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은 량치차오는 일본식 ‘이탈리아 로망스’가 지닌 카보우르 편향성을 해체하고, 배제되었던 마치니를 ‘국민 교육과 정신의 지주’로 복원해냈으며, 국민의 국가라는 이상과 주권적 역량을 갖춘 국민의 부재라는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돌파하고자 했다. 메이지 일본에서 ‘침략의 서사’로 굴절된 이탈리아 건국 영웅담은 량치차오라는 매개자를 통해 망국의 위기에 처한 조선의 독자들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저항과 해방의 상상력을 촉발할 터였다. 이처럼 서양-일본-중국-한국으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건국 삼걸 전기의 번역 연쇄는 민주주의와 해방의 상상력이 내셔널리즘을 배태하는 동시에 내셔널리즘에 제약당하는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의 내적 긴장과 모순을 성찰하도록 만든다.

76 윤영실(2026), 「지식의 편집, 사상의 변환: 량치차오의 『의대리건국삼걸전』 번역과 마치니 표상」, 『동악어문』 98, 동악어문학회.

## 참고문헌

### 자료

- 岸崎昌(1900), 『カリバルヂー』(世界歴史譚 第11編), 東京: 博文館, 1900.
- 松村介石(1898), 『近代世界十代偉人(其一): カミロ, カブール』, 『太陽』, 1898. 1. 1.(上篇); 1898. 1. 20.(下篇).
- 平田久(1892), 『伊太利建國三傑』, 東京: 民友社, 1892.
- Bent, J. Theodore (1881), *The Life of Giuseppe Garibaldi (LifeGG)*,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 Black, John Sutherland (1883), "Mazzini, Giuseppe", *Encyclopædia Britannica (Britannica9)* vol. 15, Edinburgh: A. & C. Black.
- Blackett, Howard (1882), *Life of Giuseppe Garibaldi: Italian Hero and Patriot (LifeGGP)*, London: Walter Scott.
- Botta, Vincenzo (1862), *A Discourse on the Life, Character, and Policy of Count Cavour (Discourse)*, New York: G. P. Putnam.
- De La Rive, William (1862), *Reminiscences of the Life and Character of Count Cavour (Reminiscences)*, Translated by Edward Romilly,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Roberts, & Green.
- De Mazade, Charles (1877), *The Life of Count Cavour (LifeCC)*, London: Chapman & Hall.
- Garibaldi, Giuseppe (1889), *Autobiography of Giuseppe Garibaldi (Auto1, Auto2, Auto3)*, Translated by A. Werner. With a supplement by Jessie White Mario, 3 vols., London: Walter Smith & Innes.
- Kirkup, Thomas (1876), "Cavour, Count", *Encyclopædia Britannica (Britannica9)* vol. 5, Edinburgh: A. & C. Black.
- Marriott, J. A. R. (1889), *The Makers of Modern Italy (Makers)*, London: Macmillan and Co.
- Mazzini, Giuseppe (1891), *Life and Writings of Joseph Mazzini*, vol. 3 (*Mazzini3*). Edited by Emilie Ashurst Venturi, London: Smith, Elder & Co.
- Symonds, John Addington (1881), "Italy: Achievement of Independence", *Encyclopædia Britannica (Britannica9)* vol. 13, Edinburgh: A. & C. Black.
- Thayer, William Roscoe (1892), *The Dawn of Italian Independence: Italy from the Congress of Vienna, 1814 to the Fall of Venice, 1849*, 2 vols (*Dawn1, Dawn2*),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 Venturi, Emilie Ashurst (1875), *Joseph Mazzini: A Memoir (Joseph)*, London: H. S. King & Co.

## 논저

- 마루야마 마사오(1995), 「국민주의의 전기적(前期的) 형성」, 『일본정치사상사연구』, 김석근 역, 통나무.
- 손성준(2007a), 「국민국가와 영웅서사: 『이태리건국삼걸전』의 서발동착(西發東着)과 그 의미」, 『사이間SAI』 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손성준(2007b),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동아시아 수용 양상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성준(2023), 『중역한 영웅』, 서울: 소명출판.
- 안두환(2021), 「케임브리지 학파의 지성사와 역사주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55, 한국정치학회.
- 함동주(2004), 「竹越與三郎와 1890년대 전반기 일본의 역사상」, 『일본역사연구』 20, 일본사학회.
- 近衛篤磨(1898), 「同人種同盟, 附支那問題研究の必要」, 『太陽』 4(1).
- 松尾洋二(1999), 「梁啓超と史伝」, 『共同研究梁啓超: 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東京: すずみ書房.
- 松村介石(1897), 『伊太利一統史』, 東京: 警醒社.
- 松村介石(1902), 『人物短評』(警世叢書 第3卷), 東京: 警醒社.
- 今井宏(1974), 「明治時代におけるホイッグ史觀の受容」, 『東京女子大学附属比較文化研究所紀要』 35.
- Belzer, Allison Scardino (2015), “Three Generations of Unconventional Family Values: A Case Study of the Ashursts”, *Journal of Victorian Culture* 20(1).
- Dacey, Edward (1861), *Cavour: A Memoir*,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 Duus, Peter (1974), “Whig History, Japanese Style: The Min'yūsha Historians and the Meiji Restor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3(3).
- Gibb, Lorna (2021), “Hurricane Jessie”, *Women's History Review* 30(1).
- Moore, Diana (2018), *Transnational Nationalists: Cosmopolitan Women, Philanthropy, and Italian State-Building, 1850–1890*, PhD diss., CUNY Graduate Center.
- O'Connor, Maura (1998), *The Romance of Italy and the English Political Imagin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Pecout, Gilles (2009), “The International Armed Volunteers: Pilgrims of a Transnational Risorgimento”, *Journal of Modern Italian Studies* 14(4).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3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 ABSTRACT

# “Italian Romance” of Meiji Japan (1892-1900)

Youn, Young-shil\*

Narrative Strategies of the Italian  
“Three Heroes” Biographies and the  
Modulation of Meiji Nationalism

This study analyzes the re-narrativization of biographies concerning the “Three Heroes of Italian Unification” published in Meiji Japan between 1892 and 1900. These texts were products of “intellectual editing” that selected, adapted, and reconstructed information from over 14 English sources. They functioned as an “Italian Romance” that projected diverse political imaginations aligned with contemporary Japanese nationalism. Hirata Hisashi inherited British Whig historiography but adapted it into a narrative of war urging for Japanese “national integration” and external expansion. Matsumura Kaiseki used Cavour’s practical diplomacy as a model to project an imperialist vision of Japan-led Asian liberation and “Oriental Unification”. Kishizaki Sho erased Garibaldi’s radical political nature, transforming him into a subject of popular consumption by portraying him as a romantic hero and a figure in traditional “gifted scholar and beautiful lady” (caizi jiaren) narratives. Ultimately, the “Italian Romance” of Meiji Japan functioned as a safe and attractive framework for historical interpretation that removed

---

\* Associate Professor, Soongsil Academy, Soongsil University

the dangers of republicanism while legitim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mperor-centered nation-state and its external expansion.

**Keywords** Meiji Japan, Italian Unification, Intellectual Editing, Meiji Nationalism, Whig Historiography, Pan-Asianism, Narrative Strategy